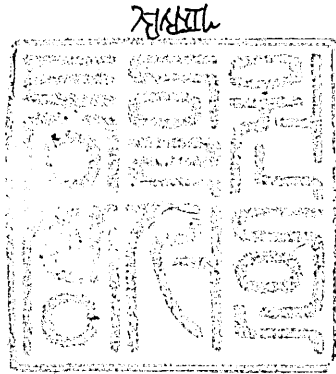


본 『南北對話 年表』는 南北會談 및
기타 南北關係와 관련한 對內 主要動向
· 北韓 主要動向 · 周邊動向 등을 綜合
整理한 것으로서 統一 · 對話업무의 基
礎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
니다.

남북대화연표(95-I)

〈1995. 1.1 ~ 3.31〉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	<p>0 金泳三 大統領 新年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實을 다지고 力量을 키워 우리의 오랜 僞元인 民族統一을 반드시 성취해야 함. - 동족간의 불신과 대립이라는 비극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함. - 세계사의 흐름에 맞게 南과 北은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함. - '95년이 나라의 선진과 번영, 민족의 통일과 영광을 앞당긴 『참다운 광복의 시대』를 열어나간 해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새해에 적극적으로 南北對話 재개에 힘을 쏟을 것임. 	<p>0 黨報·軍報·青年報 共同社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 우리는 全黨·全國·全軍에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金正日의 사상과 영도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남조선 통치배들은 파쇼폭압과 배신의 길로 나감으로써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발전하던 北南關係를 다시금 반목과 대결어로 되돌려 세웠음. - 우리와 미국사이의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北南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이는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과 군사적 도발책동,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함. - 文民政權이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역대 군부독재정권 보 	<p>0 美의회, 北核청문회 早期開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 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발언 - 우리는 북한과의 합의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곧 열 것을 촉구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		<p>다도 더욱 굴욕적인 사대매국 정권이고 파쇼독재정권, 분열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聯邦制 方式으로 통일하는 것임. -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때 朝·美사이의 비정 정상적인 적대관계는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될 것이며, 그것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지대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로 이어지게 될 것임. <p>○ 金正日, 새해 맞아 214 군부대 방문</p> <p>* 영접 : 최광, 이봉원, 남상락, 박재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是 인민군대가 일당 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 강화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人民軍隊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		<p>0 金正日, 새해맞아 朝總聯에 교육원조비·장학금 1억 35만 엔 전달</p> <p>* 총누계 129회 422억엔 전달</p> <p>0 金正日, 새해 즈음 북한주민들 에게 친필서한</p> <p>* 1.18 中·平放 발표</p> <p>- 『위대한 수령님의 戰士, 위 대한 수령님의 弟子답게 내나 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 다.』</p> <p>0 中放, 金泳三 大統領 新年辭 비난 論評</p> <p>- 국제화나 세계화는 외세의 압 력에 굴복해서 감행한 매국반 역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것임.</p> <p>- 감히 우리를 걸고 들면서 和 解와 協力에 대해서 떠벌이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의 언 동임.</p> <p>- 新年 넘두리는 사대매국적이 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 며 분열주의적인 정체를 다시 금 만천하에 드러낸 것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3	<p>0 金憲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關係 실질개선추진 방침 언급</p> <p>* KBS 사회교육방송회견</p> <p>- '95년 對北政策 기조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될것임.</p> <p>- 北韓이 아직도 변화를 과감히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나 생각됨.</p> <p>-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수 있을 것임.</p> <p>- 가공적인 논리나 당위성 차원에서의 논의를 그치고 이제 하나라도 실천해가는 통일과정을 시작해야 함.</p>	<p>0 中·平放, 汎民聯 광주·전남 연합창립준비위원장 구속 非難</p> <p>- 문민분열 독재자들의 추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드러내주는 반역적 범죄행위임.</p> <p>- 남조선에서는 이 통일운동 조직을 근원적으로 탄압 말살하고 확대 발전하는 통일운동을 가로막아 보려는데 목적이 있음.</p> <p>0 金正日 중심 일심단결 및 새해 총진군 촉구 궐기모임 진행</p> <p>* 순천탄광연합기업소 직장종업원 궐기모임, 조선인민군 경비대 군인 궐기모임 등</p>	<p>0 뉴스위크誌, 北韓, 對美군축협상 시도 가능성 보도</p> <p>- 북한은 미군 조종사 석방과정에서 마련된 직접 대화 통로를 통해 국방비 감축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p> <p>0 부트로스 갈리 UN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건설적 역할 용의 표명</p> <p>* 연합통신 회견</p>
1. 4		<p>0 社會民主黨 委員長 김병식, 공동사설 지지 談話</p> <p>-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물은 분열주의적이며 반민족적인 김 〇 〇 괴뢰정권임.</p>	<p>0 日방위청, 安保對話 다각화 추진</p> <p>* 도쿄신문 보도</p> <p>- 냉전후 일본과 아시아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韓·러·中 등 주변국</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설에 밝혀진 제반 노선과 정책들을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함. - 조선사회민주당이 金正日의 현명한 영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 수령의 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대행진에 동참할 확고한 결의를 표명함. <p>○ 金正日 중심 일심단결 및 새해 총진군 촉구 인민무력부 군인들 궐기모임</p> <p>* 참석 : 최광, 김봉률, 김광진</p>	<p>과의 안보대화를 추진키로 했음.</p> <p>○ 무라야마 日本총리, 對北 국교정상화 적극 추진시사</p> <p>* 駐日 한국특파원들과 회견</p> <p>- 戰後 50년 가까이 北韓과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1. 5	<p>○ 金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통일정책 추진에 국민적 합의·신뢰 확보 강조</p> <p>* 통일고문회의</p> <p>- 統一政策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와 신뢰 확보가 필수적임.</p> <p>- 새해에는 南北關係의 실질적 개선을 모색하여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임</p> <p>- 世界化 추진은 통일과업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p>	<p>○ 天道教 靑友黨 위원장 유미영, 공동사설 지지 談話</p> <p>- 공동사설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방침을 열렬히 지지환영함.</p> <p>- 김○○ 일당의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야만행위를 우리 천도교인들은 천추를 두고 잊을 수 없으며 피맺힌 한을 풀 수 없음.</p> <p>○ 『 祖平統 』 서기국, 세계화 구상 비난 報 道</p> <p>-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채 외세에 예측시키고 남조선 시장을</p>	<p>○ 美 國 방부, 北 공금 중유 1.21까지 북한 도착 발표</p> <p>- 1차로 예정된 선적분 5만t이 1.21까지 북한 선봉港에 도착할 것임.</p> <p>○ 페리 美 국방장관, 駐韓美軍 후방배치 否認</p> <p>* 美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p> <p>- 韓半島에 전진배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5	<p>다는 점에서 北韓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p> <p>○ 李洪九 國務總理, '95년 南北關係 중대 전기 마련 가능성 언급</p> <p>* 통일고문회의</p> <p>- 光復과 分斷 반세기를 맞는 금년에는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p> <p>- 南北經協問題에 있어 북한은 아직 소극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민간기업들은 계속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임.</p> <p>- 북한이 對南誹謗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둬.</p> <p>- 南北頂上會談은 북한에 頂上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북한이 얘기해 오는게 순서일 것임.</p> <p>-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핵심이고 이것</p>	<p>외국의 독점재벌에 통채로 내맡기는 매국행위임.</p> <p>- 괴뢰역도야말로 을사5적이나 선행 통치배들을 찌꺼먹을 특등매국노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음.</p> <p>○ 종군위안부 피해자 성토모임 (平壤)</p> <p>* 정부 사죄 및 피해보상 촉구 日本 수상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채택</p>	<p>된 美軍 일부를 후방으로 철수시켜 북한의 상응조치를 유도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추측』이라고 일축</p> <p>○ 日산케이신문, 對北경수로 자금 한국 50%, 일본 30% 분담 보도</p> <p>- 韓·美·日 3국은 對北경수로 건설자금을 한국이 50% 이상, 일본이 30%를 각자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음.</p> <p>○ 레이니 駐韓美대사, 헬기사건 불구 한반도 긴장완화 진전 언급</p> <p>* 워싱턴 세계문제협회 포럼 연설</p> <p>- 헬기 추락사건에도 불구,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완화의 국면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5	<p>만이 南北간에 진실한 협력을 가져올 것임.</p> <p>- 美·北 합의사항중 중요한게 남북간의 대화이며 이것이 전제되어야 함.</p> <p>0 호남정유, 對北공급 중유 5만t 1.11 선적 발표</p> <p>- 美 국방부 유류공급처가 對北 공급 중유의 선적 개시일을 1.11로 통보해 왔음.</p>		<p>0 美 국방부, 對北공급 重油 1차분만 부담 표명</p> <p>* 특별 브리핑</p> <p>- 1차 선적분 5만t에 소요될 470만달러는 美 국방부가 부담할 것임.</p> <p>- 이후 공급 비용은 KEDO가 부담할 것이며, 美 국방부는 향후 공급에 돈을 내지 않을 것임.</p>
1. 6	<p>0 金泳三 大統領, 年頭記者會見</p> <p>- 올해 국정의 중요한 과제는 南北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일임.</p> <p>- 統一은 世界化의 목표이자 수단임.</p> <p>- 北韓이 고립과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혁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야 함.</p>	<p>0 北·日,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관련 觀光協定 체결 (중앙통신)</p> <p>- 平壤 국제체육문화축전(4.28~30)과 관련한 觀光協定이 최근 조선국제여행사와 日 쯔카이여행사·일본교통공사 사이에 서명되었음.</p> <p>- 쯔카이여행사와 일본교통공사는 관광객 모집 단일창구가 될 것이며, 관광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됨.</p>	<p>0 모스크바방송, 한반도문제 해결위한 국제회의 소집 보도</p> <p>-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제의한 국제회의 소집문제도 절박성을 띠고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것임. - 民族의 福利를 증진하기 위하여 南北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음. -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한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南北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수적임. <p>○ 北韓 군인 1명 귀순</p> <p>* 안기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예술선동대 소속 정성산(26) 상사가 동남아 제3국을 통해 김포공항을 통해 귀순 <p>○ 김동완 KNCC 총무, 남북교회교류 확대 표명</p> <p>* 신년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統一 禧年의 해를 맞아 제4차 글리온 대회 등 南北教會의 활발한 교류, 	<p>○ 民民戰, 金泳三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감언이설로서 올해에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강화하려는 속심을 드러내 놓은 것임. - 반통일분자가 그 무슨 남북화해와 협력을 운운한 것 자체가 역겨운 것임. <p>○ 中放, 미군헬기 격추로 인민군대의 일당백 전투력 과시선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계선에서는 불법침입한 미군직승기를 단매에 목사발내는 우리 인민군대의 필승불패의 일당백 전투력이 과시되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6	<p>공동행사를 통해 희년사업을 벌어나갈 것임.</p>		
1. 7	<p>0 金壽煥 추기경, 訪北 용의 표명</p> <p>* 카톨릭신문과의 신년 특별대담</p> <p>- 광복 50주년을 맞아 南北統一에 도움이 된다면 올해안에 북한을 방문하겠음.</p>		<p>0 美, 한반도 우선의 新원-원(WIN & WIN) 전략 마련</p> <p>* 美 디펜스 위크誌</p> <p>- 美정부는 한반도와 중동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에 먼저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방기획지침(DPG)』을 '94.5 마련했음.</p>
1. 8	<p>0 남북경협업체 二週 해외통상, 4월 평양축전에 외국인 관광객 5천명 모집 북측과 합의</p> <p>* 합의서한 공개</p> <p>-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에 美·日·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5천명을 모집, 평양으로 수송한다는데 北韓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와 합의했음.</p>	<p>0 勞動新聞, 金泳三 大統領 연두 기자회견 비난</p> <p>- 세계화 구상이란 한푼의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 요설에 불과함.</p> <p>- 통일의지가 전혀 없을 뿐더러 그 자신이 통일문제에 대한 아무런 견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 보였음.</p> <p>- 변화니 개혁 개방이니 하는 내정간섭적이고 도발적인 언</p>	<p>0 北, 4월 평양축전에 외국인관광객 1만명 入國 허용 방침</p> <p>* 北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이종혁 기자회견 (日本)</p> <p>- 4월 平壤 개최예정인 국제체육문화축전에 약 1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임.</p> <p>- 외국인 관광객들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8		<p>사만 잔뜩 내뱉었음.</p> <p>- 자주·민주·통일을 열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준 것밖에 없음.</p> <p>0 『祖平統』부위원장 정신혁·『祖國戰線』의장 정두환, 공동사설 지지 談話</p> <p>- 조국통일 50돌이 되는 올해에 자주 평화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음.</p>	<p>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등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임.</p>
1. 9	<p>0 李洪九 국무총리, 南北間 政治的 協定 필요 언급</p> <p>* 獨 디 벨트紙 회견</p> <p>- 휴전선을 오가는데 따라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南北 政治的 協定이 마련되어야 될 것임.</p> <p>0 韓·美·日, KEDO발족 관련 실무회의(1.9~, 워싱턴)</p> <p>* KEDO 협정 및 운영방안 협의</p> <p>0 統一安保政策調整會議 개최</p>	<p>0 政務院, 美國 商品 반입제한조치 및 무역선박 입항금지조치 해제 결정</p> <p>* 외교부 대변인 記者會見</p> <p>- 정무원은 朝·美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상품의 우리 나라 반입제한조치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에서 미국 무역선박의 우리 나라 입항을 금지 하던 조치를 1월 중순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p> <p>- 이번 해제조치로서 우리는 朝美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무역 투자장벽 완화와 관련한 조항</p>	<p>0 美 공화당 의원들, 美·北 핵합의 재협상촉구 결의안 마련</p> <p>* 美 의회소식통 (1.10 중앙)</p> <p>- 헌터 등 美공화당 의원 3명은 北韓核 재협상 개시, 對北核 불사용 약속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한 對정부결의안을 준비중이며 빠르면 금주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和解·協力の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세계화 구상과 연결하여 추진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1.20경 정식 가동 - 南北和解·協力を 실현하는 길은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南北當事者間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시까지 현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견지 - 韓·美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p>에 따라 지닌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職盟』 중앙위원장 주성일, 공동시설 지지 談話 - 전체 직맹원들은 조국통일을 90년대에 이룩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앞장설 것임. ○ 中·平放, 일본 縣의회의 2차 대전 전몰자 추모 결의안 채택 비난 論評 - 일본 인민들속에 군국주의 사상 독소를 깊이 주입시키고 청장년들을 해외침략의 길로 내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음.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그룹 訪北 조사단, 北韓 向發 - 姜晉求 삼성전자 회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조사단이 1.11 入北 예정 ○ 權寧海 안기부장, 金正日 5월승계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通信, 테일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의 對北 단호조치 주장 비난 - 美의회 강경보수세력은 요즘 미군헬기 사건과 관련해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을 반대하는 비방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테일러는 이에 맞장구를 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국무부, 연락사무소 설치실무반 1.31 平壤 파견 발표 - 린 터크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이끄는 실무반이 1.31~2.4 平壤을 방문, 연락사무소 설치부지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0	<p>* 국회 정보위</p> <p>- 오는 5월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p> <p>- 金正日이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징후는 있으나 집무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p> <p>0 金壽煥 추기경, 日 총리에 종군위안부 사죄 촉구 書翰</p> <p>-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p>	<p>- 4차례나 우리 나라를 방문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그가 태도를 바꿔 단호한 조치를 주장한 것은 주권없는 얼뜨기라는 것을 말해줌.</p> <p>0 中央通信, 밥돌 美공화당 상원 의원의 美·北합의문 이행중지 주장 비난</p> <p>- 밥 돌은 직송기 사건을 통해 조선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못된다는 것이 증명됐으므로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떠벌였음.</p> <p>- 美 강경보수세력의 거두인 밥돌의 이 발언이야말로 우리를 극도로 자극하는 심히 도전적인 망언임.</p> <p>- 朝·美 기본합의문은 두 나라 국가수반들이 보증한 무게있는 문건으로 지금 실천적 이행단계에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음.</p>	<p>를 물색할 것임.</p>
1.11	<p>0 金泳三 대통령, 신중한 대북정책 추진 지시</p> <p>* 통일·외교·안보관련 4개부처 업무보고</p>	<p>0 비전향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94년도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전개평가 通報 발표</p> <p>- 지난해 비전향장기수들을 공</p>	<p>0 美·日정상회담, 제네바 합의 이행문제 논의 (워싱턴)</p> <p>- 제네바 美·北합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대남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중시 신중한 판단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 경수로 건설지원은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함. - 효과적인 대북경협방안을 개발하되 경협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美·北 합의 이행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신뢰에 기초하여 대원칙에 합의, 그원칙을 지켜나가야 함. - 북한내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 때 대남차원에서 오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군사대비태세에 완벽을 기해야 함. <p>○ 통일원, '95년도 주요업무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화해·협력의 실질적 진전 노력 - 美·北 제네바합의 이행 	<p>화국 북반부로 돌려보낼데 대한 조선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의 정의의 목소리는 높아졌으며 인류공동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은 내외인민들과 공정한 사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송환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임. <p>○ 中放, 미전향장기수 김선명 석방 촉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파쇼악당이 김선명 노인에게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오랜기간 독감방에 가두어두고 박해하고 있는 것은 천만번 부당한 일이고 역사상 유례없는 파쇼탄압 만행임. - 김○○ 일당의 처사야말로 국제법의 견지에서 보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 - 김○○ 일당은 내외인민들의 요구대로 비전향장기수 김선명 노인을 즉시 무조건 석방하여야 함. <p>○ 平放, 金泳三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을 개혁 개방으로 변화시 	<p>이행과 관련, 일본이 재정분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합의</p> <p>○ 北, '94.12월 平壤서 김정일·김평일 세력간 총격전說</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안보회의(ASCF) 한국안보연구 책임자 金映勳박사언급 - 지난해 12.12~17 평양시내에서 親김정일그룹과 김평일 추종세력간 권력암투가 총격전으로 번져 주요인사 8명이 사망했음. <p>○ 日교도통신, 北경수로 분담금 韓·美·日 원칙합의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소식통 인용 - 韓·美·日 3국은 △경수로 건설비용은 주로 韓·日 양국이 부담△중유공급과 폐연료봉 보관·처리비용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한다는데 기본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1	<p>과정을 남북한 관계개선 계기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지원 - 북한의 ADB, IBRD 등 국제경제기구 가입 추진시 적극 협조 	<p>켜서 흡수통합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p> <p>0 『汎民聯』 공동사무국, 새해 즈음 『7천만겨레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을 '통일마중 대행진의 해' 로 빛내이자고 주장하면서 北과 南, 해외 각계각층에게 통일마중 대행진에 동참할 것을 호소 	<p>적인 합의를 봤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건설 비용 40억달러중 일본의 부담액은 약1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임.
1.12	<p>0 統一院, 北이산가족에 제3국 통한 소액송금 가능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안내서』를 통해 외환 관리법 허용범위내에서 제3국을 통한 북한내 이산가족에 대한 소액송금 가능 확인 <p>0 統一院, 4개 기업 訪北 추가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그룹, 동양그룹, (주)신원, 대우그룹 등 4개기업에 대해 訪北승인 <p>0 대우그룹 訪北조사단, 북한 향발</p>	<p>0 『祖平統』서기국, 남한 군사도발행위 규탄 報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 첫날부터 매일같이 감행되는 군사적도발행위는 김 ○ ○ 괴뢰도당이 '95년에도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려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남조선 현 통치배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려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p>0 『농근맹』위원장 최성숙·재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서기국장 강태무, 공동사설 지지 談話</p> <p>0 金正日, 在日조선학생소년예술단 위해 연회 마련 (목란관)</p>	<p>0 日마이니치신문, 金正日, 7.8경 주식직 취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정부소식통 인용 <p>0 베이커 前 美국무장관, 美·北 핵합의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美·北 핵합의는 잘못된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2	<p>* 단장 : 李景勳 부회장</p>	<p>* 참석 : 김용순, 최용해</p> <p>0 亞太평화위 대표단, 日本 방문 마치고 귀환 (1.3~12)</p> <p>* 단장 : 부위원장 이종혁</p>	
1.13	<p>0 金應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對北송금 세부지침 마련 표명</p> <p>- 지금까지 목시적으로 허용해온 제3국을 통한 북한내 가족에 대한 송금의 규모와 횟수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있음.</p>		<p>0 亞·太의원포럼, 南北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p> <p>* 제3차회의(멕시코)</p>
1.14	<p>0 관세청, 板門店에 세관 설치 추진</p> <p>* '95년도 관세 행정운영 방향 발표</p> <p>- 南北물자교류 확대에 따라 30개 세관에 南北교역 물품 전담반을 두고, 육로 직교역에 대비 板門店에 세관 신설 추진</p>	<p>0 외교부 대변인, 日·北韓 수교 협상 관련 기자회견</p> <p>- 우리는 최근 日本과 그 어떤 접촉도 한 것이 없으며 또 일본측으로부터 그러한 제의를 받은 바도 없음.</p> <p>- 이제와서 일본이 더이상 회담에 장애를 조성할 구실은 없으며, 공은 우리가 아니라 이미 일본측이 받아안고 있음.</p> <p>-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회담에 그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음.</p>	<p>0 北韓 4월 평양 축전 앞두고 美洲교포 유치 추진(1.14 서울)</p> <p>- 뉴욕 중국계여행사 T&P그룹은 교포 언론에 평양축전 500명의 관광객 모집 광고 게재</p> <p>0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 對北관계개선 준비완료 언급</p> <p>* CNN방송 회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日회담이 재개되는가 못 되는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 본측에 달려있음. ○ 中放, 미전향장기수 김영태의 UN인권위원장에게 보낸 便紙 ('94.11) 전문 보도 ○ 릴리 前주한미대사 등 美전문가 4명, 平壤 도착 * 김영진 美조지워싱턴大 교수, 오버도퍼 美존스홉킨스大 명예연구원, 패터슨 국방안보전문가 등 ○ 노동신문, 黨창건 5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진군축구 社說 - 우리 혁명에서는 黨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 - 黨원과 근로자들은 金正日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黨창건 5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 진군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함. ○ 『民民戰』, '95년 통일구국 선언과 투쟁구호 발표 * 民民戰중앙위 전체회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매우 신중하고 단계적인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완전히 되었음. - 김정일은 권력을 장악, 정책적 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정부투쟁, 분단장벽 철폐, 외세지배와 간섭 배격,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연방제 통일 등 5개항의 통일구국선언과 52개항 투쟁구호 발표 	
1. 15	<p>0 北공급 重油, 여수항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제공 중유 2만2천5백t 을 선적한 중국선적 다킹 94호가 1. 15 여수항을 출항, 1. 17 先鋒港 입항할 예정 		<p>0 美, 미국내 北자산 週内 동결해제 방침</p> <p>* 日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 통상 및 금융 거래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금주중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해제 조치를 취할 것임. <p>0 리처드슨 美 하원의원, 金正日 권력장악 확인 언급</p> <p>* 워싱턴 포스트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김정일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북한 군부는 북한 권력내부에서 강력

■ 1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5			<p>하고 불확실한 세력으로 모든 논의와 쟁점은 군부에서 결정함.</p>
1.16	<p>0 外務部·UN고등판무관실, 北난민발생 대비책 마련위한 워크샵 공동개최 (1.16~20, 서울)</p> <p>0 삼성그룹 투자조사단, 북한 방문 종료 (1.11~16)</p> <p>* 단장 : 姜晉求 삼성전자 회장</p> <p>- 羅津·先鋒 공단조성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참여 문제 논의</p> <p>0 大宇그룹 투자조사단, 북한 방문 종료 (1.12~16)</p> <p>* 단장 : 李景勳 부회장</p> <p>- 남포 직물공장의 기술교 육문제와 가동시기 등 논의</p>	<p>0 외교부 대변인, 경수로공급 계약서에 韓國型 명기 거부 표명 기자회견</p> <p>- 美·日·남조선 3자 실무협상에서 경수로 제공계약서에 경수로의 型을 남조선型으로 명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함.</p> <p>- 여기에는 朝·美 기본합의문 이행에 惽망을 놓으려는 남조선 당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음.</p> <p>- 우리는 미국이 국제연합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수로 발전소 설비를 보장한다는 것외에 다른 것은 모르고 있음.</p> <p>- 남조선형을 계약에 명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朝·美合意에 따르는 경수로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음.</p> <p>0 『汎民聯』북측 본부, 文益煥 사망 1돌즈음 부인 박용길에게 便紙</p>	<p>0 네덜란드 국제은행 (ING), 외국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北韓 진출</p> <p>* ING 서울지점 확인</p> <p>- ING는 1.25 北고려 연방보험공사와 합작은행 설립계약을 체결할 예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통일운동단체들과 연대, 연합을 실현하여 통일의 새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여사의 의로운 애국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공급 重油 2차 선적분, 여수항 출발 - 北제공 증유 2만7천5백t 을 선적한 라이베리아 선적 라크 레이크호가 여수항 출항 ○ 한화그룹 투자조사단, 북한 향발 * 단장 : 魚在弘 한화전자 정보통신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放, 美·北 전문가회담 참가 미국대표단 平壤 도착 보도 -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제2차 朝·美전문가협상에 참가할 미국 전문가 대표단이 平壤에 도착했음. ○ 北韓정부 문화대표단, 중국·베트남 방문차 平壤출발 * 단장 : 장철 문화예술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래퍼 美국방정보 국장, 한반도 최고 안정기 언급 * 美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 - 北核합의와 북한의 권력이양은 과거 10년동안의 어느때보다도 한반도가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 -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 외부와의 대결보다는 경제향상과 정치경제적 관계개선 추구전략으로 체제의 생존을 추구하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 - 중국은 조선 인민들이 김정일의 지도아래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7			<p>있어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기를 바라고 있음.</p>
1.18	<p>0 金憲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레이니 駐韓美대사 접견</p> <p>- 美·北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韓·美간 강력한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하며, 실질적 남북대화 추진이 필수적이라는데 공동 인식</p> <p>- 金憲 부총리는 대북정책의 초점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 방지 및 평화유지 △北韓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고 공존·교류협력의 장으로 인도하는데 두고있다고 강조</p> <p>0 朴成喆 신원그룹 회장, 평양에 기업사무소 설치합의 언급</p> <p>* 1.10~17 訪北</p> <p>- 平壤에 기업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거의 합의를 보았음.</p>	<p>0 中放, 美·日 합동지휘소훈련 관련 北을 압살하려는 침략적 전쟁연습이라고 비난</p> <p>- 美·日 군부세력의 협력밑에서 아시아 사회주의 나라들을 견제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데 초점을 맞춘 침략적인 전쟁연습임.</p> <p>-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일의 완전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확립하자는데 목적이 있음</p> <p>0 金正日, 일본 지진관련 조총련 의장 한덕수에게 위로 전문</p> <p>- 한덕수 동지를 비롯한 총련 중앙상임위와 피해지역 동포들에게 심심한 위문과 애도의 뜻을 표함.</p> <p>0 중앙통신, 폐연료봉 처리 관련 제2차 美·北 전문가회담 개최 보도</p> <p>- 협상에서는 '94.11 제1차 협상에서 미결되었던 기술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음.</p>	<p>0 北, 4월 평양국제축전관련 臺灣 전세기 취항 추진</p> <p>* 대만 소식통 (1.18 중앙)</p> <p>- 北韓은 '94.12 대만정부에 조선국제여행사 명의의 공문을 발송, 4.18부터 전세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p> <p>0 北공급 중유 1차분, 북한 선봉항 도착</p> <p>* 웰리 美국무부 부대변인 발표</p> <p>- 현시점에서 중유의 인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첫 선박이 북한에 도착, 하역을 시작했음.</p> <p>0 李鵬 중국 총리, 김정일 승계지지 표명</p> <p>* 北韓정무원 부총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8		0 강성산, 일본 지진관련 무라야마 일본 총리에게 위로 전문 - 지진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람.	장철 접견 (1.19 중앙) - 중국은 金正日이 김일성의 권좌를 계승하는 것을 지지함.
1.19	0 제18차 통일관계장관회의 - 북한이 南北對話 분위기를 조성해 성의를 보임으로써 경수로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 - 南北經協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 - 南北經協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문제 적극 검토 - 우리 내부의 감상적 통일논의 제기 및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강화 가능성에 철저 대비 -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을 1.23 정식 발족	0 노동신문, 日·北 협상재개는 일본측에 달려있다고 論評 - 일본 당국자들이 朝·日회담 재개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목적은 중단책임을 남에게 넘겨 씌우자는데 있음. - 우리는 회담재개에 그 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않았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함. - 재개여부는 전적으로 일본측이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용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음. 0 김영남, 릴리 前駐韓美대사 일행과 담화 0 金正日, '94.10.16 김일성 사망 백일 중앙추도회에서 『김일성 통치방식 고수』 천명 (1.19 국제방송) - 나는 앞으로 수령님께서 혁명	0 美 상원 에너지委, 北核 청문회 * 美·北기본합의문 문제점 집중 추궁 <머코스키 위원장> ·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했음. · 남북대화의 적정한 진전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메케인 의원> · 테러국가에 대해 중유 및 경수로 제공보장은 미국의 법정신에 위배됨.

■ 1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9	<p>0 韓·美합참의장, 연합방위 체제 지속강화 합의</p> <p>* 金東鎭 합참의장-살리카 시빌리 美합참의장 회담 (서울)</p> <p>- 韓·美 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p> <p>- 향후 정전체제내에서 정전협정 관련사항이 모두 수행돼야 한다는 점 강조</p> <p>- 북한이 제네바 美·北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T/S훈련 강행</p> <p>* 살리카시빌리 美합참의장은 미군조종사 송환 노력은 한반도 휴전체제와 군정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정전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p>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 해결 위해 韓·美공조체제 중요 강조</p> <p>* 살리카시빌리 美합참의장 접견</p>	<p>과 건설을 영도해 오면서 역사적으로 하신 교시를 몇 백, 몇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함.</p> <p>0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규탄 해주시 군중집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韓·美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나라를 이간시키려는 北韓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 ○ 韓·美·日, KEDO 설립 관련 실무협의 * 趙昌範 외무부 연구관, 허바드 美국무부 부차관보, 다케우찌 日아주국심의관 참석 (1.19~20, 도쿄) - 對北 경수로지원에 있어 한국표준형 채택과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 KEDO 설립협정 문안에 한국표준형 채택을 적절히 반영(duly reflected)키로 합의 ○ 李基澤 민주당 대표, 平壤 방문 초청 관련 정부측과 협의 표명 -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음. - 북한방문을 추진하는 과 		

■ 1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19	정에서 정부방침을 배제할 생각은 없음.		
1.20		<p>○ 『祖平統』서기국, 굴업도 핵 폐기장 반대시위 노인 심장마비 사망관련 규탄 報道</p> <p>- 김○○ 일당의 파쇼적인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직접적인 살인만행임.</p> <p>- 민족을 살리고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려면 김○○ 과 같은 파쇼살인마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함.</p>	<p>○ 美국무부, 對北경제 제재 완화조치 발표</p> <p>- 美·北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對北경제 제재 완화조치들을 취할 것임.</p> <p>- 통신 및 정보 · 전화 및 전신연결 관련 거래 허용 · 개인여행 및여행시 신용카드 사용허용 · 언론기관 사무소 개설 허용</p> <p>- 금융거래 · 미국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금융거래 청산을 위한 북한의 美 銀行시스템 사용허용 · 북한정부의 물권이 아닌 동결자산해제</p> <p>- 여타 무역 · 마그네사이트의 북한으로부터 수입 허용</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조치들 · 연락사무소 개설 및 운영 관련 거래 허용 · 경수로사업, 대체 에너지 공급 및 폐연료봉 처리에 미국기업의 참여 사안별 검토 - 추가적인 對北경제 제재 완화는 핵문제 해결의 진전 및 여타 관심분야에서의 진전에 따라 고려될 것임. ○ 고노 日외상, 북한에 수교회담 재개 촉구 의회연설 - 국교정상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태이블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 EU, 北경수로 건설 공사에 유럽업체 참여 추진 * 길포드 EU 집행위 대변인 언급 - 북한경수로 건설공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0			사에 유럽 核관련 업체의 참여를 성 사시키기 위해 다 각도로 南北韓 당 국과 접촉중임.
1.21	<p>0 외무부 대변인, 美國의 대 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관련 論評</p> <p>- 북한의 核활동 동결 등 의무이행에 맞추어 취해 진 초보적 조치임.</p> <p>- 韓·美는 향후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위해서는 남 북대화의 진전을 포함한 제네바 합의사항의 이행 및 여타 관심분야에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음.</p> <p>- 금번 완화조치가 북한의 개방 및 성실한 美·北합 의 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p>	<p>0 金日成 『광복의 천리길』70돌 기념 중앙보고회 (2.8문화회관)</p> <p>* 참석 : 박성철, 김영남, 계응태 최태복, 백학림, 김중린, 전문섭</p> <p>< 최용해 보고 要旨></p> <p>-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두 리에 일심단결하여 영도를 충 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함.</p> <p>- 모든 청소년 학생들은 김일성 에게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 성을 김정일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함.</p> <p>0 IAEA 대표단, 핵동결문제 협의 차 平壤 도착</p> <p>0 『韓民戰』중앙위선전국, 구국 전선 신문과 구국의 소리 방송 특파원 平壤 상주결정</p> <p>특파원 平壤 상주결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전 중앙위 상무위 결정에 따라 '95.1 부터 구국전선 신문과 구국의 소리방송 특파원 들을 平壤에 상주시키기로 하였음. ○ 릴리 前駐韓美대사 일행, 북한 방문 마치고 離平(1.14~21) * 1.19 김영남·김용순 면담 ○ 北·美 제2차 폐연료봉 전문가 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 평양에서 1.18-20 진행된 협상은 유익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의의있는 진전을 이룩하였음. - 5MW실험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처분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 발족 -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설치하여 對北경수로사업 지원관련 실무 전담 ○ 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 對北경수로지원- 남북대화 연계방침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平統』서기국, 좌경폭력혁명불가담 서약 관련 朴弘 서강대 총장 비난 報道 ○ 외교부 대변인, 동북아 多者 안보대화 반대입장 표명 談話 - 동북아지역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해도 기대할 것은 없으며 도리어 복잡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NPT연장 준비회의 개최 (뉴욕) * 본회의 일정및연장 방법 등 협의 ○ 허바드 美국무부 부 차관보, 말聯 등에 北공급 중유 10만t 제공요청 기자회견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경수로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제네바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함. -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이는 경수로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결을 조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일본은 지역문제를 들고다닐 것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나 바로해야 하며 주변나라들과 쌍무적 신뢰를 도모하는데 전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동북아지역에 냉전의 후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대한 일부 세력들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 그 어떤 다무적 성격의 안보대화 출현도 반대함. - 亞·太지역에 이미 아세안지역 연단과 같은 포괄적인 안보대화 연단이 나온 실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산유국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北韓에 공급할 원유 10만t을 제공하기를 바람. ○ 포드 前 美대통령, 北韓 核합의 불이행 우려 표명 *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 북한이 약속을 어길 때에 대비한 보다 확고한 준비가 필요함. - 북한정권의 지난 50년동안의 신뢰성 없는 군사·외교정책으로 미루어볼때 협정 이행은 회의적임.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俞在賢 경실련 사무총장, 북한『국가적 실체』인정 주장 * 經實聯 통일협회 주최 토론회 - 金正日 정권의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단체 연합회의, 8.15 공동경축 및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 참석 : 양형섭, 김용순, 유미영, 문경록, 주성일, 최용해, 염태준, 백인준, 백남준 * 의제 : 『조국해방 50돌을 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IAEA, 핵동결및 사찰이행을 위한 協商 재개 (평양) ○ 조셉 나이 美국방부 차관보, 주한 미군 향후 10년간 현수준 유지 언급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4	<p>다음 정권과 다시 대화를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 상대인 하나의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 함. <p>○ 趙源一 駐UN차석대사, NPT 무기한연장 지지 政府 입장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연장회의를 위한 제4차 최종준비회의 (뉴욕) - NPT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함. - 핵보유국은 NPT 4조와 6조에 따른 의무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 핵실험금지조약(CTBT)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함. 	<p>이하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p> <p>< 黨비서 김용순 보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해방 50돌을 北南,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공동으로 경축할 것을 제의함. - 8.15 민족공동의 경축행사를 계기로 北과 南, 海外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대민족회의』를 열고 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할 것을 제기함. - 北을 방문할 것을 원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정치인들과 인사들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들, 개별인사들과도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음. <p><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 정당·단체 연합회의는 8.15에 板門店에서 해내외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해방 50돌을 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경축할 것을 남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미우리신문 회견 - 앞으로 10년간 駐韓 및 駐日美軍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동북아 다국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東아시아전략을 마련했음. ○ 美上院외교위, 北核 청문회 개최 < 크리스토퍼 美국무 장관 연설 요지 > - 기본합의문 타결은 韓·日의 안전보장 동북아 核군비경쟁 방지, 전세계적 핵 확산방지체제 유지 등 미국의 모든 전략적 목표들을 충족시키고 있음. - 관계정상화의 출발점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 군사 분계선에 집중배치돼 있는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논의 부터 시작돼야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4		<p>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정중히 제의함.</p> <p>- 北南, 海外가 조국해방 50돌 경축 대축전장에서 해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열고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할 것을 제의함.</p> <p>- 온 민족이 8월의 대축전장에 자리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남 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 하여야 함.</p> <p>○ 종교인 및 학자대표단, 미국방 문차 平壤 출발</p> <p>* 단장 : 장재철(조선종교인협 회 회장)</p> <p>○ 외교부 대변인, 미국측의 기본 합의문 이행조치 관련 『報道』 발표</p> <p>- 미국측은 중유 5만t을 1.17과 1.19 선봉항에 운반해 왔으며 1.23까지 하선작업을 전부 끝 마쳤음.</p> <p>- 1.20 美국무성은 재산동결 해 제 등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 화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 를 발표하였음.</p>	<p>- 남북대화의 실현은 美·北합의의 성패 를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임.</p> <p>- 북한이 核합의 이 행과정에서 속임수 를 쓰는지 여부를 미국이 판별할 능 력을 갖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5	<p>0 宋榮大 통일원 차관, 북한의 8.15공동경축 및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대민족회의 개최 제의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북한측이 광복 5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하자고 제의해온 것을 환영함. - 광복절 공동경축행사를 포함한 南北간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쌍방 당국이 次官級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주앉게 되기를 기대함. -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北韓側이 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면 될 것임. <p>0 李基澤 민주당 대표, 訪北 의사 표명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한반도에서의 평 	<p>0 中放, 주한미군 향후10년간 현 수준 유지방침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기본합의문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朝·美 두 나라에 다 이롭지 못한 것임. -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아무리 제동을 걸어도 이제 朝·美관계는 결코 달리는 되지 않을 것임. -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계속 호전적 망발을 하면서 우리에게 위협과 압력 일변도로 나간다면 우리도 제 갈길을 따로 가면 될 것임. <p>0 金正日, 지진피해 재일동포에 위문금 100만달러 송금</p> <p>< 한덕수 앞 電文 요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 동포들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가시고 안정된 정상적인 생활을 이룩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문금으로 미국돈 100만달러를 보냄. <p>0 강성산, 『호주의 날』즈음 키팅 수상에게 祝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정상화 시사 -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현 국 	<p>0 美 민주당·공화당 의원 7명, 對北결의안 상·하원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름스, 머코스키, 사이먼, 매키니스 의원 등 <p>< 결의안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행정부는 기본합의문 실천이 남북 대화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진전과 연계돼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행정부는 남북한간 긴장완화 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 일정표를 개발해야함. · 남북정상회담 개최 · 북한 핵재처리시설 즉각 해체 · 남북 상호핵사찰 시작 ·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 단계적 군축 등 긴장완화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南北 공동군사위 창설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5	<p>화체계 구축,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천명해 놓은 북한방문을 조속히 실현시키도록 하겠음. - 남북 정부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야당 대표라도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국익을 위해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임. 	<p>제정세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롭게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이한 급의 대표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쌍무적이던 다무적이던 대화와 접촉을 활발히 가져야 함. <p>○ 北韓 적십자회 중앙위, 지진피해 관련 日本 적십자사에 위문금 20만달러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고위관리를 특사로 임명, 북한정부와 남한 및 관련 우방들과 이 조치들에 대해 협의토록 해야 함. <p>○ 美 NYT紙, 한반도 군축및 신뢰구축조치 필요성주장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과 미국 3자는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양측의 군비감축과 군사훈련의 규모 축소, 병력이동 사전통보, 군사령부간 핫라인설치 등 신뢰장치의 구축이 필요함.
1.26	<p>○ 孔魯明 외무부장관·탈보트 美국무부 副장관 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건설 등 美·北합의 이행과정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일치 - 앞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p>○ 美·北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북한대표단 평양 출발</p> <p>* 단장 : 김정우(대외경제위 부위원장)</p> <p>○ 『汎民聯』북측본부 중앙위 총회 (平壤)</p>	<p>○ 페리 美 국방장관, 美·北합의 이행경비 韓·日부담 언급</p> <p>* 美상원군사위 北核 청문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 기본합의문 이행에 소요되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6	<p>위해 양국 긴밀협조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지원 관련 韓國型 경수로가 공급돼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정전협정은 南北당사자간 직접 협의를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원칙 재확인 	<p>* 안건 : '94 사업결산 및 '95 과업, 의장단·중앙위원 보선 문제</p> <p style="text-align: center;">〈 결의문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내외 모든 동포들과 함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어나갈 것임. - 외세의존·사대매국적 행동과 군비경쟁, 분파행동, 반북대결소동을 중지시키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鬪爭할 것임. - 올해 8.15를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을 성대히 마련하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대전진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 올해를 汎民聯 조직을 강화하고 범민련 운동을 보다 거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력을 다할 것임. <p>○ 美·北 경수로 전문가회담 참가 북한대표단, 베를린 도착</p> <p>* 단장 : 김정우(대외경제위 부위원장)</p>	<p>경비는 5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그 대부분의 경비는 韓·日이 지불하게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KEDO 운영 경비와 對北 중유 공급 등에 연간 2천만~3천만달러의 경비를 부담하게 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7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동포도 자유·인권 누리도록 최선 언급</p> <p>* 비폭력 평화상 수상 연설</p> <p>- 우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이 깃드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p> <p>- 남북이 하나가 되어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더욱 크게 기여하는 시대를 열겠음.</p> <p>0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탈보트 美국무부 副장관 接見</p> <p>- 남북대화와 美·北관계 개선은 병행·조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재확인</p> <p>- 對北경수로 지원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대화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일치</p> <p>- 韓·美간 확고한 공조체계 재확인</p> <p>- 金 부총리는 대북정책은 변화를 경계하는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p>	<p>0 노동신문, 南側의 차관금회담 제의 거부 論評</p> <p>- 남조선 당국이 당사자들인 정당·단체들과 각계대표들이 의사표시도 하기전에 제먼저 나서서 그것을 가로막는 언동을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분별없는 망동임.</p> <p>- 남조선 당국이 8.15 공동경축 행사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대민족회의는 통일전선방식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공동경축 자체도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논리임.</p> <p>- 남조선 당국이 이번 성명에서 취한 태도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민족의 염원에 도전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임.</p> <p>0 4월 平壤축전 관련 일본 관광 고찰단 訪北</p> <p>- 4월 평양 국제체육문화예술 축전취재 서방기자단 60명을 포함 총 120명으로 구성</p> <p>0 조선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 폐막</p> <p>* 참석 : 최광, 김광진</p>	<p>0 퀴노네스 美국무부 한국과 담당, 北, 폐연료봉 점검 협조 언급(平壤)</p> <p>* 러 이타르타스통신 회견</p> <p>- 북한은 폐연료봉 보관상태 점검 등 핵기술분야에서 미국측에 잘 협조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p>한 작은 것부터라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대민족회의 제의는 비현실적이며 아직까지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한 성의와 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는데 공동인식 <p>○ 金泳三 대통령, 韓·美 동맹관계 결속 강화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보트 美 국무부 副장관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 동맹관계를 강화, 강한 결속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韓·美 이간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 <p>○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제3국 이산가족상봉 적극 지원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향민대표들과의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적십자회담을 재개, 고향방문 등이 우선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도 적극 지원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채택하고, 미군헬기 격추 군인에게 『정예군사』 칭호 수여 	

■ 1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십자사의 尋人사업 등 국제기구를 적극활용,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 시키는데 성의를다하겠음. ○ 孔魯明 외무부장관, 경수로 제공 관련 南北對話 필수 강조 * 지역정책연구원 조찬 강연회 - 경수로가 북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직접대화가 필수적임. - 現정전체제는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할수없음.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이기택 대표 平壤방문 초청 談話 - 平壤방문 의사를 다시금 밝힌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기회에 이기택 대표를 평양에 초청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 - 平壤방문이 실현되면 공화국 북반부의 책임있는 정당대표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아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美·北경수로 전문가회담 개막 (베를린) ○ IAEA 협상대표단, 訪北일정 마치고 平壤 출발 * 핵문제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논의 ○ 北·러, 인권조항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8		<p>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결상태에 있는 北南관계를 개선하는 출로를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임.</p> <p>0 『祖平統』, 통일원의『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안내서』관련 談話</p> <p>- 우리 인민들이 그 따위 몇푼의 달러에 현혹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신착란증에 걸린 자들의 가소로운 망동에 불과함.</p> <p>- 인민들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내부를 교란시켜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 밖에 빚어낼 것이 없음.</p> <p>- 우리에게 황색바람을 불어넣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반공화국 책동으로 인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함.</p> <p>0 사회민주당 위원장 김병식, 아시아 국가 순방차 平壤 출발</p> <p>0 『朝總聯』, 북한정당·단체연합회의 호소문 지지聲明</p>	<p>포함된 새별목협정 타결</p> <p>* 외무부 고위당국자 언급</p> <p>- 리 정부는 북한측과 인권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별목협정 개정협상 타결 사실을 1월초 한국 정부에 전해 왔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28		0 金正日, 조선인민군 선동원대 회 참가자 접견 및 軍협주단 공연 관람	
1.30		0 『祖平統』서기국, IAEA관리의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계속 추진 권고 비난 談話 - IAEA의 관리의 희떠운 소리가 김 〇〇 일당에나 통할줄 모르나 민족자주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음. - 남조선의 반민족적이고 도발적인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 하지 않을 것임. - IAEA의 관리들도 민족 내부분 제에 함부로 개입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1.31		0 종교인 및 학자대표단,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으로 미국 방문 * 장재철(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등 종교계인사 4명과 군축 및 평화연구소 관계자 2명 0 中央通信, 나진·선봉지역 외국 기업·금융기관 적극 진출보도	0 北·필리핀, 외교관계 수립 협상 * 이도섭 태국 주재 북한대사-세베리노 필리핀 외무차관 회담 (마닐라) - 외교관계 수립에 의견접근 및 상호 공식방문 확대키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1.31		<p>- 외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국제기구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p>	<p>합의</p> <p>0 허바드 美 국무차관 보, 南北對話 재개 최우선 추진 언급</p> <p>* 美헤리티지재단 주최 세미나</p> <p>- 미국은 현재 美·北합의 이행과 관련해 남북대화 재개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있음.</p> <p>- 美헬기 사고로 美·北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음.</p> <p>0 美·北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참가 미국대표단 平壤 도착</p> <p>* 단장: 린 터크 美 국무부 부과장</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	<p>0 朴銖吉 유엔대사, 남·북한 간 즉시 이행가능사업 유엔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해 5월 남북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남북한 양측에 제시한 20개사업 가운데 우리 정부가 즉시 이행가능하다고 선정한 것임. - 선정·통보된 4개분야 11개 사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산업분야 :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 ii) 환경분야 : 남북한간 환경규정조화, 기후변화 영향 분석, 해양오염 공동대처, 생물다양성지도작성, 환경감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고, 동북아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성 iii) 교통분야 : 동북아지역 교통기간시설 건설(남북한 철도연결 등) iv) 과학분야 : 기상정보교류, 남북한간 과학용어 통일 	<p>0 제2차 美·北경수로 전문가회담 종료 (1.28~2.1, 베를린)</p> <p style="text-align: center;">〈 공동보도문 要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美는 '95.1.28~2.1 베를린에서 조선에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을 교체하기 위한 경수로발전소 제공에 관한 제2차 협상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朝·美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그리고 합의문의 사항들에 부합되게 조선에 경수로 대상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려는 자기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쌍방은 협상에서 일련의 전진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경수로제공 협정체결을 위하여 합의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에는 원자로型과 제공범위, 재정문제들, 계약체결방식, 핵안전과 책임 그리고 경수로 대상과 관련한 필요한 담보들이 포함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음. - 쌍방은 또한 핵안전문제에 관한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음. - 경수로 대상에 관한 다음번 협상은 '95.3월중에 가능한한 	<p>0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對北관계 개선 점진적 추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의 전면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청신호가 있지만 우리는 이 작업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음. - 한국 정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음. <p>0 美국무부, 北韓인권 탄압 불변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 북한관련,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에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 북한에는 형법 52조등이 동원돼 체제저항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12개의 오지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		<p>빨리 진행함.</p> <p>0 사회민주당 김병식 위원장, 李基澤 대표에게 정당간 회담 제의 放送便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실현하는 여기에 90년대 통일의 열쇠가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는 北과 南의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만나야함. - 北과 南의 정당들이 우선 만나 흥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게 되면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귀당에 접촉을 실현할 것을 정중히 제의함. - 시일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장소로는 평양·서울이나 혹은 板門店도 좋고 제3국도 무방할 것임. <p>※『祖國戰線』중앙위, 민자당·신민당·새한국당에도 정당간 회담제의 방송편지</p> <p>0 제2차 美·北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담 개막(平壤)</p>	<p>수용소에 약 15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돼있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전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련,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지 않고 노동운동이 여전히 제약을 받는 등 문제점이 남아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고 노사분규에 보다 중립적으로 대처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도 계속 되는 진전이 있었음.

■ 2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			<p>0 고노 日외상, 핵합의 불이행때 경수로 지원 중단 대북경고</p> <p>* 日 중의원 답변</p> <p>- 북한이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수로 지원을 중단할 것임.</p> <p>- 북미합의는 경수로 핵심부품의 도입 이전에 핵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임.</p> <p>0 머코스키 美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미북핵합의 재검토</p> <p>* 美외교위원회 주최 세미나</p> <p>-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타결한 핵합의의 재협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p>
2. 3	<p>0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의 대북성명</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북측이 1.25 우리 측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업을 공동추진할 것을 제의함. - 4월 개최예정인 평양 국제체육문화축전에 해외 동포들만이 아니라 남쪽의 이산가족들과 함께 참가케하여, 그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이루어지기 기대함. - 북측이 4월 평양축전개최 준비와 관련 다수의 외국 언론인들을 초청한 바 있음에 유의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한국 언론인들의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방북취재활동을 전면허용할 것을 촉구함. - 우리기업들의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와 필요한 경우 나진·선봉지역만이 아니라 그 어느지역도 방문할수 있는 긍정적 조치가 뒤따르기를 기대함. - 이상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책임있는 고위당국자들이 서울·평양·판문점 등 어디서든 빠른 시일내에 마주 앉을 수 있기 희망함. 		

■ 2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3	- 고위당국자의 수준과 회담개최시기 및 장소의 선정문제는 북측에 일임함.		
2. 5		0 金正日, 291군부대 여성해안포 중대 시찰 - 영접: 이하일, 이봉원, 김명국	
2. 6		0 北韓, 국제항공기구(ICAO)에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IASTA) 수락서를 제출 0 金正日, 해군 제155부대 시찰	
2. 7	0 韓·美, 駐韓美軍 현수준凍結 확정 (워싱턴) * 孔魯明 외무장관, 페리 미국방장관 회담 - 북·미 제네바 核합의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이 계속 되고있고, 韓半島의 정세가 불안정한 점등을 감안 駐韓美軍을 추가감축하지 않고 現水準으로 동결기로 함. - 韓·美同盟關係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뿐	0 北韓 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관련 南韓 여러단체들에 방송 便紙 - 조선기자동맹 제1부위원장 최영상은 한국기자협회 안재휘 회장에게,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강영섭·서기장 이천민은, 한국기독교 협의회 오충일 회장과 김동환 총무에게,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협의회 함세웅 공동의장에게,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위원장 남춘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해숙위원장에게 便紙	0 무라야마 日本총리, 한반도分斷 책임없다고 발언 - 식민지 지배를 한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韓半島分劃은 전승국이 한 것이며, 日本에 法的 책임이 없음. 0 美 WP紙, 美北合意 이행 霧散될 가능성 보도 - 美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北韓이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7	<p>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亞·太지역 안보유지의 근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데도 의견일치</p> <p>○ 孔魯明 외무장관, 北韓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시 對北경수로 지원거부 경고</p> <p>*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의원합동간담회(워싱턴)</p> <p>- 北韓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對北경수로 지원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임.</p> <p>- 그러나 韓·美양국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단호한 立場을 堅持한다면 북한측이 결국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하게 될 것임.</p> <p>- 南北對話도 없고 한국형 경수로도 수용되지 않은 채 연락사무소만 개설되는 일은 없을 것임.</p>		<p>한국형 경수로의 공급을 끝내 拒否한다면 제네바합의가 이행될 수 없을 것임.</p> <p>- 지난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北韓 대외경제위원회 관리는 韓國을 경수로 제공자로 명문화하는 어떠한 契約文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음.</p>
2. 8	<p>○ 孔魯明 외무장관, UNDP사업에 北韓참여 촉구</p> <p>* 부트로스 갈리 UN사무총장 회담 (뉴욕)</p>	<p>○ 『祖平統』대변인, 南北對話제개여부는 南側態度에 달려있다고 기자회견</p> <p>- 남조선 당국자들은 지난 4일</p>	<p>○ 러시아, 러製 경수로 주장 (2.8 중앙)</p> <p>- 갈루치 美핵담당대사와 파노프 러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孔魯明 외무장관은 오는 9월 초청방한때 北韓도 동시에 방문, UNDP가 제안한 사업에 北韓도 參與하도록 촉구해줄 것 당부 - 갈리 총장은 서울과 평양에 있는 UNDP사무소를 이용해 南北韓 關係改善 및 協力事業을 위해 할 수 있는일을 하겠다고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무부장관을 직접 미국에 보내어 南北對話再開問題를 구걸하는 이른바 청탁외교를 벌이고 있음. - 북과 남 대화문제는 民族内部 문제로서 남에게 청탁할 일도 아니며 또 누구에게 청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대화의 좋은 분위기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음. -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對話를 再開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에게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謝罪하는 일부부터 해야하며, 동시에 國家保安法과 같은 반대화, 반통일악법을 廢棄하여야 함. ○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 대변인, 南韓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北側代表團 서울 招請관련 談話발표 - 우리는 北과 南의 여성들이 조국해방 50돌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죄행을 폭로하고 피해보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일공동행동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제3차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우리측 대표단을 보낼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차관 회담에서 러시아는 北韓에 적합한 경수로기술은 러시아뿐이며 북한측도 러시아製 경수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고 주장 ○ 로드 美국무부 東亞太 차관보, 北韓, 한국형 경수로 拒否時 제네바합의 무산 경고 - 北韓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한다면 제네바合意가 霧散될수 있음. - 北韓은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의위반자가 될 것임. ○ 셸리 美국무부 副대변인, 對北추가지원 계획없다고 언급 - 우리는 정상적인 경수로供給의 공급밖에 있는 부수항목에 同意한다거나 또는 경수로 事業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 기대함. ○ 외교부 대변인, 美국무성의 북한 인권문제관련 연례보고서 비난 談話 - 미국이 이번에 들고나온 우리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것으로써 인권적 견지에서 논의할 한 톨의 가치도 없으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규탄하며 배격함. ○ 北韓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제의관련 南韓 여러 단체들에 방송 便紙 - 『조국전선』 정두환의장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성균이사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경석사무총장에게, 『사로청』 최용해위원장은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유기홍의장에게,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는 천주교중앙협의회 상임위원회 김수환의장에게,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은 전국불교운동연합 최지선 상임의장에게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를 크게 늘리는 부수항목에 합의할 생각이 없음. - 그러나 원자로의 安全稼動을 위한 설비지원문제만을 재검토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8		<p>0 北韓, 金日成 사망 추모기념 籌貨 발행 발표</p> <p>* 중앙인민위원회 정령</p> <p>- 기념주화는 금화와 은화로 발행하게 됨.</p> <p>- 금화의 크기는 직경 35mm, 은화의 크기는 직경 40mm임.</p>	
2. 9	<p>0 統一院 대변인, 北韓의 서울 중군위안부會議 參席 용의 表明관련 論評</p> <p>- 政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제 3차 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대회(2.27-3.1)에 北側代表團의 參席허용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임.</p> <p>0 統一院 대변인, 종교인 등 訪北許容문제 관련 論評</p> <p>- 政府는 종교·학술·문화 분야에서의 北韓방문 허용 등은 現時點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음.</p> <p>0 外務部대변인, 訪美 北韓 종교인대표 단장 장재철의 클린턴 美대통령面談(2.2) 확인 발표</p>	<p>0 北韓, 中立國監督委 폴란드대표단에 대해 2.28 까지 撤収토록 최후통첩</p> <p>*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박임수 대좌, 폴란드 대표단사무소 방문·통보</p> <p>- 北韓은 2.9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대표단에 대해 오는 2.28까지 철수토록 최후 통첩하고, 폴란드대표단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내 불법체류 단체로 규정·의법처리하겠다고 위협 하였음.</p> <p>0 北韓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제의관련 南韓 여러 단체들에 발송 便紙</p> <p>- 『조국전선』정두환 의장은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과</p>	<p>0 로드 美국무부 차관보, 北韓, 한국형 경수로 수용 가능 언급</p> <p>* 美하원 亞·太소위 청문회</p> <p>- 北韓은 현재 韓國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고 있으나 결국 한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임.</p> <p>- 이는 정치·경제 및 기술적 요인들을 고려한 끝에 내린 判斷임.</p> <p>0 페리 美 국방장관, 美北合意 不이행시 主한미군 增強추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9	<p>- 클린턴 美대통령은 기도회가 열린 힐튼 호텔의 기도회 직전 각계대표 33명과 별도 面談을 가졌는데 그중 장제철도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었음.</p>	<p>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김근태 공동의장에게, 『직맹』 주성일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종근 위원장에게, 『농근맹』 최성수 위원장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강춘성 회장에,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은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송일주 회장에, 조선기독교연맹 이천민 서기장은 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강문규 사무총장에게,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연맹 남순희 위원장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진균·장임원 공동의장에게 便紙 발송</p>	<p>언급</p> <p>* 美상원 군사위 청문회</p> <p>- 美·北韓間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履行되지 않는다면 駐韓美軍 增強계획을 추진키 위해 議會에 추가예산을 요청할 것임.</p>
2.10	<p>0 孔魯明 외무장관, 對北경수로 비용外 追加지원 없다고 기자회견</p> <p>- 北韓이 美國에 대해 追加支援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경수로 자체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사가 없음.</p> <p>- 우리는 경수로 供給 自體에만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다만 KEDO 구성후 참가국사이에 논의는 될 수 있음.</p>	<p>0 평방, 국방부장관의 對北 발언 非難 論評</p> <p>- 국방부장관이 서울신문과 대담해서 북의 재래식 무력이 위협으로 된다는니 하면서 괴뢰들이 흑백을 전도하면서 생트집을 잡아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저들의 도발적인 북침전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교활한 속심에서 출발한 것임.</p> <p>0 北韓사회단체들, '대민족회의' 소집 제의관련 南韓 여러 단체들에 발송 便紙</p> <p>- 『조국전선』 정두환 의장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0	<p>0 金應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原子力協定』필요성 강조</p> <p>* 관훈토론회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관계가 경색된 일차적 이유는 北韓권력체제가 안정을 찾지 못한 연유임. - 김수환추기경은 대민족회의 호응으로 오인되는 때 아닌 시기를 訪北시기로 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진호 선원을 보낸다면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음. - 國家保安法은 문민정부 들어 法개정과 함께 법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 北韓이 혁명과 통일목표를 분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로서 법폐지는 상당한 모험임. - 南北對話를 미국에 구걸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앞으로 중재를 구걸할 생각은 없음. 그러나 당분간 韓美共助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함. - 南北정상회담문제는 北韓에 새主席이 옹립되면 자 	<p>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이창복 김상근·박순경 공동상임의장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서경순 상임의장,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 최종현회장에게, 조선천도교회 유미영위원장은 천도교 중앙총부 김재중 교령과 단군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에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박명옥 부위원장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이효재·윤정옥·김희원 공동대표들에게 便紙 발송</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0	<p>연스럽게 재논의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현재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으며, 팀스피리트 訓練문제는 北美合意이행과 연계되어있음. - 平和協定問題를 미북간의 논의로 생각할수 없으며, 2+2 方式타결문제는 우선 남북간 締結後, 국제적 보장문제는 그 뒤의 일임. - 韓國이 한국형 경수로의 공급자가 되면 南北間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이 불가피함. 그 時期는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5년 이내가 될 것임. - 실질적인 한국형 採擇이 보장되면 기종을 표현하는데 있어 명기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형 이외의 다른 것으로 誤解될 소지는 없어야 함. 		
2.11	<p>○ 金泳三 대통령, 3. 2-15 유럽 5개국 巡訪 예정</p> <p>* 청와대대변인 발표</p> <p>-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p>		<p>○ 北韓, 對中경협요청</p> <p>* 2.7-11 金福信 副總理 극비 訪中 (3.2 서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1	<p>『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3.11-12, 덴마크 코펜하겐』參席전후에 프랑스·체코·독일·영국·벨기에 등을 방문함.</p> <p>○ 韓·日, 對北경수로 지원 원칙 不變 재확인</p> <p>* 孔魯明 외무장관과 고노 요헤이 외상 회담</p> <p>- 한국型경수호가 採擇되지 않으면 북·미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p> <p>- 北韓이 한국형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합의이행을 再檢討해야하는 중대한 상황이 올 것임.</p>		<p>- 金부총리가 극비리에 이봉총리와 만나 앞으로 3년간 1천만톤이 넘는 원유와 석탄, 쌀등 생필품들을 유리한 조건하에 北韓에게 제공해줄것을 요청</p>
2.12		<p>○ 北韓천주교회, 韓國司祭 派北및 聖堂건립 희망 (2.12 평화신문)</p> <p>- 北韓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장재철이 빌리 그레이엄목사의 초청으로 訪美中이던 지난 2.5 나진·선봉지구의 聖堂建立과 司祭派遣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였음.</p> <p>○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p>	<p>○ 美 기업대표단 18명 向北</p> <p>- 美기업대표단 18명은 北京을 거쳐 2.14-18 平壤을 방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2		위한 대책위원회, 공개질문장 발표	
2. 13		<p>0 『平視』 관련 TV 中繼 등 6개 항 합의서 조인 (평양)</p> <p>* 서명: 北 김용순, 日 이노끼</p> <p>- 4. 28-30 축전 평양에서 진행, 4. 28 『5·1 경기장』 개막식, 4. 29 프로레슬링 경기·예술 공연·폐막식, 4. 30 '조선의 날' 제정·민속놀이·집단체조 진행</p> <p>- 축전행사 TV실황·녹화 중계</p> <p>- 축전참가 손님·관광객들의 백두산·묘향산·금강산·평양·개성 등 관광 편의보장</p>	<p>0 中國, 한반도 統一 반대 불원 입장</p> <p>* 黃秉泰 駐中대사 기자간담회</p> <p>- 中國은 北韓 核문제가 한고비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韓半島 統一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음.</p> <p>- 中國과 北韓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제 調整 단계를 맞고 있으며, 北韓이 對美 接近을 하면서 中國과 거리를 두려하고 있음.</p> <p>0 北韓, 對南경협창구 『高民發』에서 『國際協力總局』으로 변경</p> <p>* 黃秉泰 駐中대사 기자간담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對南창구였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의회(高民發)가 최근 없어지고 대신 국제협력총국이 그 業務를 承繼한 것으로 보임. - 국제협력총국은 對外經濟委 소속으로 나진·선봉지역에 韓國企業이 진출하는 문제도 다루게 될 것임. - 지난해 5월에도 對南경협창구를 금강산개발에서 고민발로 바꾼바 있음.
2.14	<p>○ 金泳三 대통령, 『통일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 언급</p> <p>* 민주평통 업무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北韓이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사회일각의 잘못된 對北觀을 바로잡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할 것임. 	<p>○ 平放, 金泳三 대통령의 世界化論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〇〇 은 세계화를 떠들면서 민족의 사활적 문제인 조국통일보다 우위에 놓고 감히 조국통일이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이라고까지 떠들고 있음. - 이것은 세계화를 위해 조국통일을 희생시키겠다는 궤변으로 세계에서 저들의 위상을 높여 승공통일을 해보겠다는 수작임. 	<p>○ 美·北 핵연료봉 보관방법 합의</p> <p>* 日니혼게이지자이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北간에 8천개의 핵연료봉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2백개의 특수 컨테이너를 도입함. - 컨테이너는 건식보관과 액체보관 2종류로 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은 세계화의 목표이자 수단임. - 統一에 대비한 國論형성과 범국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선도적 役割을 다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0 0 이 우리와 대결하겠다는 공공연한 대결선언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희생시키려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0 중통, 美 기업대표단 평양도착 보도 - 미국 제너럴 모터스 아시아태평양회사 사장 토마스 S. 맥대니얼과 줌왈트 자문회사 부사장 제임스 줌왈트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미국 실업계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로의 移轉 보관은 금년 가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0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대북 추가원조 배제 언급 * 美상원 외교위 - 美北간에 합의된 협정은 전체를 통합하는 완벽한 합의서이며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추가경제원조도 말지 않을 것임.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金憲 부총리, 南北經協지침 위반기업 제재언급 * 국회 외무통일위 - 일부 대기업들이 經協추진과정에서 방북목적을 벗어나 대규모사업을 북한과 협의하는등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경험추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經協협약에서 준수해야할 지침을 명확히 제시해 이를 어길경우 승인철회와 협력사업불허 등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강요땀 核합의 파기 기자회견 - 美國이 무조건 한국형이라는 이름까지 강요하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 경수로型 문제와 관련한 압력 수단으로 T/S 훈련 재개 소문까지 내돌리고 있음. - 이러한 처사는 朝·美합의문 이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합의문을 파기에로 끌어가려는 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5	<p>조정해 나갈 것임.</p> <p>- 일부기업들의 對北투자협 의과정에서 북한쪽에 뇌 물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것임.</p>	<p>- 만일 이것이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부 득불 결심을 달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될 수 없음.</p> <p>- 이때문에 설사 朝·美합의가 깨진다해도 그리고 T/S 훈련 때문에 모든것이 朝·美회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해도 우리는 잃을 것이 없음.</p> <p>- 미국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기본합의문이 이행되지 못할 바에는 경수로 제공논의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초기단계 에서 합의문이 깨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을수 있음.</p> <p>0 金正日 생일 53돌 경축 중앙보 고 대회(2.8문화회관)</p> <p>* 참석 :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병식</p> <p>< 黨비서 계응태 보고 ></p> <p>- 金正日是 전민족대단결과 조 국통일위업 실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나가는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하고 있음.</p> <p>-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聯邦制방식으로 90년대에 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5		<p>어이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어버이수령의 필생의 신념을 온삼천리 강산에 꽃피워야 하겠음.</p>	
2.16	<p>0 金應 통일부총리, 북한대표 서울방문 승인 언급</p> <p>- 오는 27일 부터 열리는 "중군 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할 북한 대표 5명의 판문점 통과 허용할 예정임.</p> <p>0 金應 부총리, 우리의 『2.3제의』호응 대북촉구</p> <p>*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연설</p> <p>- 올해가 광복5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北韓이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南北 대화의 재개와 실질적 개선에 성의있게 호응해오기를 기대함.</p> <p>-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는 것은 美·北 합의구도의 이행에 장애로 될 것이며 한국형경수로를 받는것이 안정성은 물론 民族공동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함.</p>	<p>0 노동신문 사설, 『金正日노선과 방침을 철저관철』 보도</p> <p>- 金正일이 당과 혁명을 영도하게 된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에 양양한 미래가 펼쳐진 뜻깊은 사변임.</p> <p>- 金正일의 사상은 金日成의 사상이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곧 김정일의 사상임.</p> <p>-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그대로 구현한 金正日 동지의 노선과 방침, 우리당의 결정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해야 함.</p>	<p>0 허바드 美國務副차관보, 한국형 경수로 유일방안 재천명</p> <p>* 한국경제연구소와 美메릴랜드대 공동 주최 세미나</p> <p>- 한국형 경수로만이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北韓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北 美합의가 진전될수 없음.</p> <p>0 렉 駐韓美軍사령관, 對北제공 重油군용 轉用 가능 증언</p> <p>* 美상원 군사위</p> <p>- 일부 重油가 北韓 군부에 의해 빼돌려졌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어,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北韓측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계속 미·북한평화협정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것임. - 북한이 平壤祝典에 해외 동포와 외국의 언론인들은 초청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참관과 우리측 언론인의 訪北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함. ○ 외무부 당국자, 북한의 핵합의 파기위협 관련 논평 - 北韓의 미북합의 파기 시사는 상투적인 벼랑끝 교섭전술에 불과함. - 美北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北韓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것임. ○ 『民主平統』, 당국간 회담 호응촉구 對北聲明 - 南北기본합의서와 韓半島非核化공동선언 철저준수 - 美北연락사무소 개설비롯 		<p>그들은 轉用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함.</p> <p>○ 美, 對北韓 규제완화 조치 공식發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재무부의 1.20 對北韓 제재완화 조치 발표에 이은 後續措置로서 이를 정식발효시킴. - 발효된 規定에는 北美間 단체여행 및 여행관련 사업을 허용하고, 平壤에 언론사 지사를 설치할 경우 북한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美北間 거래가 허용된 정보관련 물품 가운데 콤팩트 디스크, CD 롬, 미술품, 뉴스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6	<p>美北관계개선·경수로건 설지원은 南北關係增進과 병행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등 人道的 문제해결을 위 해 南北對話에 자세전환 - 통일전선전략 지양, 南北 고위급회담 등 當局者間 對話에 즉각 호응 		
2.17	<p>○ 南北기본합의서 발효 3주 년 기념 세미나 개최</p> <p>< 金惠 부총리 기념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이며, 남과 북은 올해를 민족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南北韓은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기존 합의를 성실 히 지켜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 가야 할 것임. <p>< 鄭元植 前總理 기조연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本合意書 내용들이 하 	<p>○ 이종옥 부주석, 태국 자유정의 당 당수 우라이라트 면담 (평양)</p>	<p>○ 슬로컴 美국방차관, 北韓 重油 轉用 걱정안한다고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重油는 군 사용 연료로 전용 될 수 없는 것임. - 北韓이 美北합의를 잘지켜왔으며 그들 이 美國으로부터 공급받은 重油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걱정하지 않음. <p>○ 中國, KEDO 不參결정</p> <p>* 중국 고위관리발언 (2.18 경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은 KEDO 참여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7	<p>나하나 실행됐더라면 지금쯤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됐을것이며 北韓이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타개의 길은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있음.</p>		<p>문제를 놓고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檢討한 끝에 참여치 않기로 最終結論을 내렸음.</p> <p>○ 쉘리 美國무부 대변인, 對北 경수로 韓國型 외 대안없다고 발언</p> <p>- 한국型 경수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p>
2.18	<p>○ 金應부총리겸 통일원장관, 『中國, 2개 한국정책』 전망</p> <p>* 세계화 추진위원회 4차 회의</p> <p>- 中國은 한반도정세안정과 북한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2개 한국정책이 가시화될 것임.</p> <p>- 이와관련 우리는 韓中間 긴밀한 정치·경제관계를 도모하고 한반도 안정화</p>	<p>○ 중방, 大統領의 『민주평통』 자문회의시 언급내용 비난보도</p> <p>- 김 0 0이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며 북남사이에 물리적,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겹겹히 쳐놓고 일체 대화와 접촉을 가로 막으면서 세계화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임.</p> <p>- 김 0 0이 南北對話의 다양성을 운운하는 것은 해방50돌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거부해나서는 반민족적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임.</p>	<p>○ 日교도통신, 北韓 소형 잠수정 48척 보유 보도</p> <p>* 中國 군사전문誌 『현대군사』 2월호</p> <p>- 이 소형 잠수정은 74년부터 제조됐으며 수중배수량25t, 연장 20m로 소형 어뢰발사관 2문을 가지고 있으며 7명의 전투요원이 승선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18	<p>를 위한 中國의 긍정적 기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北中同盟관계의 무력화를 추진해야 함.</p>		
2.20	<p>0 李時榮 외무차관, KEDO 美國 주도운영 발언</p> <p>-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한국이 北韓을 지배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월초 설립될 KEDO 내에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美國이 이같은 역할을 할 것임.</p> <p>- 北韓은 현재 단지 한국형이라는 名稱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이 주기업체가 되는 형태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임.</p>	<p>0 北韓 중군위안부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서울 제3차 중군위안부 연대회의 參加 통보</p> <p>*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 電文</p> <p>- 대표단은 중군위안부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함.</p> <p>- 2.26, 10시 판문점을 통하여 나가려하니 신변안전담보각서를 속히 보내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 대표단 명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홍선옥(상무위원) · 성원: 최금춘(상무위원) 리은심(위원) 박성옥(부서기장) 강덕순(위원) 김성림(위원) 박영심(전중군위안부) <p>0 평방, 南韓 학생들에 통일대축전 성사 위한 鬪爭煽動</p> <p>- 김 o o도당은 통일대축전을 파탄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p>	<p>0 訪北 美기업대표단, 위성통신 등 설치 協議</p> <p>* 美 WP紙</p> <p>- 지난 14일 平壤 방문한 美國 기업대표단의 일부가 北韓의 나진 선봉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위성통신 설치 문제를 논의했음.</p> <p>- 대표단과 동행한 홍콩의 한 企業은 5억달러 상당의 공항 및 부두건설 계약을 체결했음.</p> <p>0 쉘리 美國무부 副대변인, 對北제공 重油 軍전용 가능성 일축 정례브리핑</p> <p>- 우리는 난방 및 발전목적으로 선적한 重油 중 매우 작은 양의 전용가능성에 대해 일부 우려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0		<p>동하고 있는 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통일대축전을 가로 막는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을 반대해서 견결히 투쟁해야함.</p>	<p>표명했으나 그 重油가 북한군장비에 사용됐느냐에 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음.</p>
2.21	<p>0 金泳三 大統領,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 羅雄培 국회의무통일위원장 임명</p> <p>- 金 憲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羅雄培 국회의무통일위원장을 임명</p> <p>0 李洪九 국무총리, 對北경수로 지원은 韓國 중심 역할 不變 천명</p> <p>* 임시국회 국정보고</p> <p>- 南北關係는 아직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北韓이 조만간 남북관계 改善에 적극 호응해 나올 전망은 밝지 않음.</p> <p>- 北韓은 정부 조치를 비난하면서 민간기업인을 초청하는 二重的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南北經協을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p>	<p>0 아시아태평양평화위 金容淳 위원장, 대민족회의 관련 金大中 『亞·太財團』이사장에게 接觸提議 放送 便紙</p> <p>- 빠른 시일안에 우리 委員會와 貴이사회 代表들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것에 대하여 정중히 提議함.</p> <p>- 상봉 場所로는 平壤도 좋고 서울이나 제3국도 무방함.</p> <p>※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최영삼 제1부위원장은 민주언론 운동협의회 정동익 회장에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김병훈 위원장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송기숙 회장에게,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박태호 위원장은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박진관에게 同 내용의 방송 편지</p>	<p>0 北 노동당 간부 등 4명 美國 방문 예정 (2.21세계)</p> <p>- 美國 민간단체초청으로 北韓 해외동포위원장 전경남, 아태 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등 4명은 美國 방문위해 평양을 출발</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1	<p>- 경수로지원은 民族共榮과 南北관계의 장기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며, 우리의 중심적 役割이 없는 경수로 지원은 있을수 없음.</p> <p>- 北·美間의 제네바合意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北韓 核문제 해결과 南北經協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트는데 注力해 나가겠음.</p>		
2.22	<p>○ 羅雄培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南北經協 통해 關係改善 주력 취임사</p> <p>- 北·美간의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북한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트는데 주력해 나가겠음.</p> <p>○ 李養鎬 국방장관, '95 T/S 訓練 중단대비 代替訓練 검토 발언</p> <p>* 외교안보기자클럽 주최 토론회</p> <p>- 訪韓중인 로드 美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협</p>	<p>○ 『聯盟』중앙위, 노동운동 탄압 비난 聲明</p> <p>-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 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려는 김 0 0일당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단호히 규탄함.</p> <p>○ 駐中대사 주창준, 『平祝』에 한국국적 한국인 방북 불허 기자회견</p> <p>- 오는 4월 平壤국제체육문화축전 기간중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시민권을 가진 韓國人을 포함해 美國·日本 등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北韓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韓國</p>	<p>○ 駐韓 UN司, 中監委 폴란드대표단 강제 철수 항의書翰 발송</p> <p>- 停戰委에 참가하고 있는 代表를 바꾸는 문제는 停戰協定에 기술된 절차를 제외한 어떤 다른 방법도 거절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2	<p>의해서 올해 T/S 訓練을 하지 않게되면, T/S 훈련을 대체할 제2의 韓·美 聯合訓練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p> <p>○ 崔東鎭 경수로지원 기획단장, KEDO이사회 滿場一致 制방식 운영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韓·美·日 3국이 중심이 된 이사회의 滿場一致制 방식으로 운영함. - 제네바합의에 따라 KEDO의 사무총장은 韓國과 日本측에서 각각 맡을 예정이며, 韓國企業이 경수로 공급의 主계약자가 되는 데는 이견이 없음. <p>○ 『亞·太財團』, 北韓 아·태평화위원회의 접촉提議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으로서는 北側제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 - 먼저 南北當局間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재단의 일관된 입장이며, 북한측으로부터 올해 8.15행사와 관련한 어떠한 서신도 받은 바 없음. 	<p>國籍의 한국인의 訪北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축전에는 金正日도 참가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2	<p>0 統一院, 제3차 일본군위안 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北韓側참가단 南韓訪問 승인</p>		
2.23	<p>0 李俊求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소장, 제3차 일본군위안 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관련 對北電通文</p> <p>- 우리측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요청에 의해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하는 북측대표단의 板門店 통과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便宜제공등에 관한 협의 및 身邊安全保障覺書 수교를 위하여 2월 26일(일)오전 9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連絡官 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p> <p>- 우리측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연락관 2명이 나갈 것임.</p> <p>0 韓美양국, 美北合意 이행 문제 관련 高位실무회의 진행(서울)</p> <p>* 李在春외무차관보 · 로드 미국무차관보 참석</p> <p>- 韓美양국은 美北 합의서</p>	<p>0 北韓, 사회개발정상회의(3.11 덴마크, 코펜하겐)에 副主席 김병식 참가 공식 通報 (2.23 경향)</p> <p>0 중방, 南北對話 재개전에 국가보안법 폐기 등 주장</p> <p>- 남조선이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사죄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대화·반통일 악법을 폐기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제기한 조국해방 50돌 북과남·해외 통일대축전의 성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말아야함.</p>	<p>0 日 아사히신문, 美 국방부, 駐韓美軍 3만 7천명 維持확인 보도</p> <p>* 東아시아 전략보고 (EASR)초안</p> <p>- 美軍은 약3만 7천명의 美軍을 韓國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며, 北韓이 침략할 경우 韓美양국은 이길수 있을 것임.</p> <p>0 美국무부, 폴란드 中監委철수문제 관련 聲明</p> <p>-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韓國과 北韓이 직접해야할 사안이며, 북한주장대로 美國과 北韓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는 결코 응할 생각이 없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3	<p>이행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일단 T/S訓練을 잠정 유보기로 입장을 정리</p> <p>- 한국뿐외에 대안이 없으며 北韓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한국뿐이라는 점이 경수로 공급협정에 명기돼야 하고, 北美合意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南北對話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p>		<p>0 갈루치 美 국무부 核 대사, 北, 폐연료봉 보관작업이 봄부터 시작 전망</p> <p>* 美하원 亞·太小委 청문회 증언</p> <p>- 北韓의 폐연료봉의 안전보관과 국외반출을 위해 폐연료봉을 용기에 보관하는 작업이 금년 봄부터 시작되어 내년 가을에 完了 될 수 있음.</p> <p>0 허바드 美 국무부 副 차관보, 미북연락사무소 開設 연기시사</p> <p>* 美하원 亞·太小委 청문회 증언</p> <p>- 韓國이라는 우방을 희생하면서 北韓과 연락사무소를 開設하거나 關係改善을 하지 않을 것임.</p> <p>- 기술적인 현안들을 妥結했을때 연락사무소문제를 進展시킬 계획이나 아직</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3			<p>그 시점이 아님.</p> <p>○ 中監委 폴란드·스웨덴·스위스 3국 대표단, 北韓의 폴란드대표단 撤収압력 관련 共同聲明</p> <p>- 北韓 정부에 대하여 폴란드대표단에 대한 위협을 撤回할 것과, 現 한국 정전협정의 기능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한 同 協定과 관련한 규정을 철저히 존중할것을 요청함.</p>
2. 24	<p>○ 外務部대변인, 폴란드 中監委 撤収문제 관련 論評</p> <p>- 北韓측의 행위는 정전협정 자체는 물론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現 정전협정의 준수를 명시한 南北基本合意書 기본정신에 정면위배되는 것임.</p> <p>- 우리는 北韓側의 이와같은 정전체제 와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대로 平和體制로 전환될 때까지는 現 停戰協定體制를 확고</p>	<p>○ 외교부대변인, 새로운 平和保障體系 수립문제관련 談話</p> <p>-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 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임.</p> <p>- 더욱이 우리와 北南合意書를 통하여 불가침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남조선 당국이 분수없이 평화보장체제 수립에 간참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백지화하려는 시도에 아무것도 아님.</p>	<p>○ 워너 美國방부 차관보, 1개여단 중장비 韓國에 추가 배치 언급</p> <p>* 美하원 亞·太小委 청문회 증언</p> <p>- 美國은 北 核문제와 상관없이 北韓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하고 유사시 신속증원을 위해 올해 駐韓美軍 제2보병사단에 1개 여단이 사용할 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4	<p>히 준수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北韓側이 폴란드 대표단에 대한 일방적 철수위협을 즉시 撤回함으로써 現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것을 촉구함. <p>○ 金泳三 대통령, 南北頂上會談 서둘지 않겠다고 언급</p> <p>* 독일 언론인 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은 서두르지 않을 것임. 北韓정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나 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본노선을 변경했다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음. - 獨逸정부가 平壤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상주하고 있는 독일 이익대표부를 일방적으로 강화하는것은 권장할만한 일이 못됨. <p>○ 李在春 외무부 차관보, 停戰委 폴란드대표단 강제철수 강력對應 대북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폴란드대표단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美國이 법률적 견지에서나 남조선에 있는 현 무력의 실태의 견지에서보나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의 실천적 담당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더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p>○ 平放, 한국형 경수로채택 관련 비난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〇 〇일당이 이른바 한국형 경수로를 北에 들이밀려는 것은 그것을 공화국 북반부로 뚫고 들어오기 위한 교류창구로 악용해 보려는 불순한 기도와 관련있음. - 경수로를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사자인 우리에게 달려있음. <p>○ 金正日, 오진우 병문안 위로</p>	<p>있는 추가 중장비를 사전배치키로 하였음.</p> <p>○ 로드 美 국무부차관보, 경수로 韓國하청 OEM 방식 제공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에 제공될 경수로를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이나 韓國업체에 하청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北韓에 제공될 경수호가 한국형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음. <p>○ 러 이타르타스통신, 北韓 벌목공 人權보장관련 새 林業協定 체결보도</p> <p>* 北 임업부 부부장 이은섭, 러 공업정책위 부위원장 칼린 서명(平壤)</p> <p>○ 美 共和黨 의원들, 美·北합의 條約化 요구</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 24	<p>끝내 축출할 경우 엄청난 외교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임.</p> <p>- 停戰委 소속 국가와 유엔 참전 16개국들과 協議, 對應할 것임.</p>		<p>(2. 27한겨레)</p> <p>- 스펙터, 헬름스, 머코스키 등 美 공화당 중진의원 3명은 돌 상원 원내총무에게 書翰을 보내 美·北 합의문 조약화를 촉구</p>
2. 25	<p>0 國防部 대변인, '95 T/S 훈련 중단발표</p> <p>- 정부는 그간 美國과 긴밀한 협의하 北韓 核관련 제네바 협의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면서 '95 T/S훈련의 실시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왔음.</p> <p>- 제네바 합의사항은 현재 이행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韓·美 양국은 北韓이 同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하에서 금년 3월중 실시키로 계획되었던 T/S訓練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음.</p>	<p>0 北韓,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사망 발표</p> <p>*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 공동명의</p> <p>- 오진우가 '95. 2. 25, 2:30 암성질환으로 서거하였다는 것을 알림.</p> <p><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p> <p>- 김정일,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선실, 김철수, 김병식, 유미영, 김기남, 김국태, 황장엽, 김중린 外(총245명)</p> <p>- 오진우영구는 '2. 8문화회관'에 안치하며, 3.1 발인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5		<p>0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 대표단, 서울종군위안부문제연대회의 불참 관련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표단이 회의성격상 판문점에 있는 적십자통로를 이용하여 실무적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함. -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나서서 신변안전담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며 회의참가를 방해하였음. - 우리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와같은 불순한 책동을 반민족, 반통일 행위로 인정하며 강력히 규탄함. - 부득이 회의에는 참가 못하지만, 준비된 토론문들과 결의문초안을 주최측에 보낼것임. <p>0 金正日, 오진우 빈소 問喪</p> <p>* 수 행 : 최 광, 이을설, 백학림, 김광진, 김봉을</p>	
2.26	<p>0 統一院 대변인, 제3차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北側代表 남한 방문 취소 유감 論評</p>		<p>0 比외무장관, KEDO가 입 발표</p>

일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側은 우리측이 신변안 전보장각서 대신 방문증 명서를 발급한 것처럼 왜 곡하면서 이를 불참 사유 로 내세우나 이는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임. - 南北간의 판문점을 통한 인원왕래시 연락관 접촉 을 갖는 것은 20여년간 지속되온 오랜 관례임에 도 불구하고 당국개입 운 운하면서 연락관접촉 자 체를 시비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北側이 모처럼 마련된 민 간교류행사에 사실과 다 른 이유를 들어 방문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 러운 일임. 		
2.27	<p>○ 金泳三 대통령, 南北統一 은 南北協議에 따라 단계 적 推進 표명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頂上會談은 北韓이 그들 내부 사정으로 연기 를 요청해온 것임. 따라 서 공식적인 權力承繼가 이루어진 후 그들이 입장을 表明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함. 	<p>○ 勞動新聞, 南側이 중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北側 대표단 參席妨害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표단의 회의참가를 막 아나선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 동은 중군위안부 문제를 해결 하려는 전체 조선여성들과 온 민족의 염원에 배치됨. 	<p>○ 美 國 방부, 駐韓美軍 減縮 영구중단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國 國 際 安 全 保 護 局 (OIS A) 東 亞 太 地 域 戰 略 報 告 書 - 美 國 은 주한미군을 減縮하고자 했던 계획을 영원히 중 단했으며 駐韓美軍 의 현대화와 함께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統一은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南北間 協議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정부의 基本立場에는 변화가 없음. - 南北經協은 지난해 11.7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소규모 경협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南北當局間에 경협에 필요한 각종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협의가 있어야 보다 의미있는 經協이 進展될수있음. 		<p>한국군의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적극 支援하고 있는 중임.</p>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務部 대변인, 북한의 美北韓間 平和協定체결 주장 관련 聲明 - 北韓은 외교부대변인 담화(2.24)를 통해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에 있어 大韓民國의 當事者地位를 부정하고 美國과 平和協定 策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북한 주장은 法的, 現實的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인 우리 지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전혀타당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交部 대변인, 中監委 폴란드 대표단 철수관련 談話 - 우리는 지난해 4월 공고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제안을 내놓고 그 과정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軍停委에서 자기대표단을 주동적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음. - 中監委에 와있던 뿔스카 대표단의 철수문제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平和保障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필수적 요구임. - 뿔스카 政府가 우리의 권고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監委 폴란드 대표단, 판문점 철수 *외무부 당국자 확인 - 군사정전위원회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北韓의 압력을 받아온 중립국 감독위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6명이 2.28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철수했음. ○ 거리 력 駐韓美사령관, 北도발 격퇴에 큰 희생 예상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美양국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문제가 南北韓間에 解決되어야할 사안이며, 미북간에 논의될수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함. - 정부는 當事者解決 원칙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공고한 平和體制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現 停戰協定을 준수해 나갈 것임. 	<p>이해를 표시하고 中監委에 와 있던 자기대표를 철수시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과정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될 것임.</p> <p>○ 中放, 金대통령 취임 2돌 기념식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 〇 〇역도가 2.25 취임 2돌을 계기로 지난 2년간 남조선에서 그 무슨 변화와 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데 이는 자화자찬이 아닐수 없음. - 金 〇 〇역도가 집권2년 동안에 한 것이란 外세의존정책과 북남대화를 모두 차단시키고, 정세를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몰아넣은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하원 안보위 청문회 - 과거와 마찬가지로 韓美공동방위체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테러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北韓의 공격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人命과 기간시설의 희생이 예상됨. ○ 력 유엔軍 사령관, 北韓의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逐出관련 安保理에 특별보고서 제출

■ 3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1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게 비방중상 중지 촉구</p> <p>* 3·1절 기념사</p> <p>- 南과 北은 이제 統一의 큰길을 활짝 열어야하며 먼저 화해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함.</p> <p>- 우리는 北韓의 경수로 건설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經濟協力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北韓과 교류, 협력태세를 갖추고 있음.</p> <p>- 이제는 北韓이 변화해야 하며, 민족자존과 민족단합의 3.1 정신에 반하는 같은 민족에 대한 비방중상을 中止해야 함.</p>	<p>0 故 吳振宇 장례식 거행 (2.8 문화회관)</p> <p>* 참석자: 金正日, 강성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광, 계응태 등</p> <p>* 장지: 대성산 혁명열사능</p>	<p>0 파노프 러 外務次官 정전체제 폐기부당 언급</p> <p>- 北韓이 停戰體制를 폐기하려는 것은 적절치못한 조치이며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소집되어야 함.</p> <p>0 러 모스크바 방송, 北韓의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逐出은 北韓의 韓·美 이간책 보도</p> <p>- 이 조치는 美國과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며 韓美사이에 쐐기를 막으려는 北韓의 의도에 따른 것임.</p>
3. 2		<p>0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 갈루치 美 核담당대사 앞 서한 (3.9 중앙)</p> <p>- 4.21까지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核동결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5MW급 실험로와</p>	<p>0 北韓-유엔司, 中監委 폴란드대표단 撤収 관련 대령급 接觸 (군정위 회의실)</p> <p>* 참석 : 유엔司側 움스 대령, 北側 박임수 대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		<p>같은 1.2개 核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게 될 것임.</p> <p>- 그러나 4.21이후 協定이 체결 되면 그 단계에서 동결해제한 시설을 다시 동결하게 될 것임.</p> <p>○ 중방, 미국측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재차요구 논평</p> <p>- 美國이 조선반도의 北과 南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며 현실적으로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황된 주장임.</p> <p>- 지금 停戰機構는 미국측이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 파괴 했기때문에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음.</p> <p>- 美國은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체약 쌍방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새로운 平和保障體系를 樹立하는데로 나와야 함.</p>	
3. 3	<p>○ 金泳三 대통령, 南北統一은 역사적 필연 발언</p> <p>* 파리 특파원 간담회</p>	<p>○ 중방, 8.15 대민족회의 보장 위해 國家保安法 철폐 보도</p> <p>- 조국해방 50돌을 공동으로 기</p>	<p>○ 력 駐韓UN군사령관,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철수관련 金正日에 항의 書翰</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라진 민족끼리 統一은 역사적 必然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시간문제임. - 北韓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對北 接觸을 전개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며칠전에 北韓에서 기가막힐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사실도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임. <p>○ 李洪九 국무총리, 광복 5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관련 언급</p> <p>* 임시국회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共同紀念事業을 위해 지금이라도 北韓이 협의에 응해온다면 적극 추진할 것임. <p>○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KEDO설립협정 文案에 한국 표준型 明示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輕水爐공급협정은 KEDO가 북한과 체결하고, KEDO는 다시 한국과 상업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될것임. 	<p>넘하고 민족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를 협의 확정하기 위한 대민족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로 나서고 있음.</p> <p>○ 北韓 반핵·환경보호단체들, 남한 굴폐도핵폐기장 건설계획 관련 비상연합회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핵평화위원회·조선반핵평화의사협회·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국가환경보호위원회·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 등은 남한굴폐도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관련 비난 共同聲明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지난 53년에 체결된 休戰協定에 어떠한 변화도 동의한바 없음. - 정전협정 승계권자로서 귀하와 본인은 정치적차원에서 平和體制가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할 책임이있음 - 귀하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 中監委 폴란드대표단이 원상복구할수 있도록 措置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p>○ 갈루치 美국무부 核대사, 한국型 거부협정체결 연기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제네바합의문 조건들을 준수하고 核계획 동결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設立協定 문안에는 한국표준형이 적절하게 표기될 것이며,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에도 한국형은 명확히 들어가야 할 것임. - 北韓에 제공될 원자로는 한국회사가 설계·제조·건설하는 한국표준형 원자로이며, KEDO의 주계약자가 한국기업이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음. 		<p>을 계속하여준다면 경수로 문제를 별도로 타결할 필요성이 없을 것임.</p> <p>0 코지레프 러 外相, 北·美合意 성공 불투명 발언</p> <p>- 北美합의는 복잡한 구도로 되어있어서 더욱 論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현상태로는 성공이 保障되리라고 생각지 않음.</p>
3. 4	<p>0 韓國·체코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하벨 체코 대통령(프라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인권상황개선에 양국은 공동노력을 기울임. - 北韓의 核무기 개발저지, 한국의 유엔安保理 비상임이사국 進出에 긴밀히 협의키로 함. 	<p>0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과 세계 각국 정부·정당·단체들에 보내는 告發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保安法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악법,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영구분열악법, 민주와 인권을 말살하는살인악법, 범죄와 모략사건 조작의 악법임. - 國家保安法의 철폐를 위한 투쟁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 3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4		0 부주석 김병식, 사회개발정상 회담(3.6 덴마크) 참석차 平壤 출발	
3. 5		0 金正日, 집단체조 『영원히 높이 모시리』관람 (평양체육관) * 참석: 최태복, 김기남,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등	0 李 鵬 중국총리, 한반도문제 對話를 통한 解決 발언 * 全人大 보고 - 中國은 이전부터 계속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음. - 中國은 주변에 위협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對話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
3. 6	0 韓國·獨逸 정상회담 * 金泳三 대통령, 쿨 독일 수상(본) - 兩國頂上은 한반도정세 안정을 위해서는 北韓의 核武器개발저지가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北美 제네바 合意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공동인식		0 美 디펜스 뉴스紙, 최근 北韓 대규모 冬季군사훈련 實施 보도 - 北韓은 수년 이래 최대규모의 연례 冬季訓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美國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北韓에 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폴란드 대표단을 중감위에서 축출한 것은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이며, 平和協定 체결여부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協議·決定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金泳三大통령은 北核問題 해결을 위해 獨逸의 KEDO 참여 등을 요청하고 독일과 북한수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우리와 事前協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음. 		<p>공한 重油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임.</p>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 대통령, 北韓에 곡물·원자재 提供用意 천명 * 獨逸 외교3단체 초청연설 (베를린) - 우리는 北韓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北韓에 곡물을 비롯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用意가 있음. - 南北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의 불신과 반목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交流·協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거부입장 재표명 기자회견 - 우리는 경수로 제공협정이 조미사이 합의된 4.21까지 체결될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경수로에 대한 기대마저 허물어지고 있음. - 우리 核시설들의 동결과 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의 재개, 담보협정의 완전이행, 폐연료의 안전한 보장과 궁극적인 처분, 핵연료와 연관시설들의 해체 등 조미기본합의문 이행 전반은 경수로 협정체계를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설립협정 관련 韓·美·日 3자회의 (뉴욕) * 참석: 韓國 최동진 경수로 기획단장, 美 갈루치 핵담당 대사, 日 엔도대사 ○ 셸리 美국무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관련 北韓과 協商안 하겠다고 발언 * 정례 브리핑 - 美國은 경수로문제 해결을 위해 3.9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7	<p>하는 길을 터나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南과 北이 급격한 통일에서 오는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며 점진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民族共同體를 건설하기위해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3단계 과정을 축소하기위해 요구되는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것임. <p>○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KEDO지원은 경수로에 국한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제네바合意 문안대로 경수로支援에 국한할 것이며 송배전 시설은 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KED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는 韓·美·日 3국 각각 거부권을 갖는 전원합의체로 運營될 것이며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나 자문위원회는 권고적 기능만 가짐. 	<p>준으로 하여 맞물려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남조선형을 고집하는 미국 태도로 말미암아 경수로협정이 합의된 기간내 체결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결심을 내리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 <p>○ 『8.15 통일대축전』관련 북한 정당·단체대표협의회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통일대축전을 북과 남해외가 공동추진하려는 염원에서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성원 선출 · 준비위원장: 김용순 · 부위원장: 4명의 정당·단체 책임일군 · 위원: 20명 	<p>KEDO협정 서명이전에 北韓과 사전접촉할 의사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한국형 경수로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다시 표명한 것은 北韓의 통상적인 의사표명 방식의 하나라고 간주함. <p>○ 베이컨 美국방부 대변인, 北韓의 동계 軍事訓練이 이전과 크게 차이 없다고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이번훈련은 과거 실시했던 것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것은 아님.
3. 8	<p>○ 韓國·英國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메이저 總理 (런던)</p>	<p>○ 平放, 南韓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 실시계획 취소 요구 논평</p>	<p>○ 韓·美·日3국, KEDO 발족 관련 說明會 개최 (뉴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상은 南北對話를 포함한 미북 核합의문의 합의사항을 北韓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로 공동인식을 했음. - 金泳三 대통령은 英國이 KEDO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음. 0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金대통령의 對北韓 곡물·원자재 提供 提議 관련 기자간담회 - 金대통령이 독일 演說을 통해 대북 곡물, 원료, 물자 제공 용의와 민간차원 교류·협력의 적극 권장은 남북간의 實質的 關係改善과 화해·협력, 신뢰회복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에 대해 北側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함. - 政府는 작년 11월 經協활성화 조치를 기초로하여 일관성 있는 原則과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질서 있고, 단계적인 경협을 지속적으로 推進해 나갈 것임. - 곡물 등의 물자를 장기저리로 提供하는 것은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국방부가 오는 4.3-8까지 육·해·공군 합동군사 연습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임. -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려는 목적은 일종의 군사적인 압력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경수로 문제해결에서 어떠한 양보를 받아내려는데 속심임. - 김 0 0일당은 심사숙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하며 모험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무조건 건어치워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원회원국인 韓·美·日 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러시아 등 20개국과 유럽 연합 대표 참석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8	<p>차원 보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간 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별도의 새로운 對話提議보다는 이미 열어놓은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해 북측이 呼應해 올 경우 언제든지 이의 실현을 뒷받침할 것임.</p>		
3. 9	<p>0 KEDO 공식 발족(뉴욕)</p> <p>- KEDO 설립협정은 韓國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 美國 갈루치 국무부核대사, 日本 엔도 대사 등 3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음.</p> <p>< KEDO 設立協定 요약 ></p> <p>▲ 目的 및 機能: 1천메가와트 용량의 韓國型 경수로 2基로 구성되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원조달과 공급, 對北 대체에너지 공급 등 北美 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履行을 위함.</p> <p>· KEDO는 北韓에 이전되는 核물질·장비 및 기술이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과 평화적 목적으로만 안전</p>	<p>0 미전향장기수 출소자 송환문제 관련 법률가·적십자일군 공동 토론회 진행 (평양)</p> <p>* 참가: 백남준, 차문빈, 백영호</p>	<p>0 沈國放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平和協定으로 대체 지지 기자회견</p> <p>- 韓半島 停戰協定은 여전히 유효하나 한반도 주변변화에 따라 평화협정체제로 代替해나가는 것이 발전 추세임.</p> <p>- 그동안 韓半島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한반도 停戰協定당사국들은 한반도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變化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창조해 나가야함.</p> <p>0 폴란드 중감위 대표단, 韓國서 役割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9	<p>하계 이용되도록 北韓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장을 받아야 함.</p> <p>▲ 構成: 원회원국과 일반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원회원국은 韓·美·日 3국이며, 일반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로 구성됨.</p> <p>·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韓·美·日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3국 全員合意를 통해 이루어짐.</p> <p>▲ 財政 및 法的地位: 각 회원국은 적절한 資金提供 등으로 KEDO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며, 기여금은 KEDO뿐 아니라 KEDO의 계약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p> <p>○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韓國이 輕水爐 설계, 제작, 건설 擔當 기자회견</p> <p>- 한국형이란 韓國이 경수로 공급에서 中心役割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기업이 설계와 제작, 건설을 담당하는 것</p>		<p>행 희망</p> <p>* 駐中 폴란드 대사관 관계자</p> <p>- 폴란드 정부는 板門店 중감위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아래 韓國에 派遣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같은 의사를 韓國·美國 등에 이미 전달했음.</p> <p>○ 日 교도통신, 北·日 지난달 국교정상화 協商재개 비공식 협의 보도</p> <p>- 北韓과 日本은 중단상태인 양국 국교정상화 協商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극비로 비공식 協議를 시작했음.</p> <p>○ 갈루치 美國무부 核대사, 『경수로 협정 4.21은 時限이 아니라 目標』 기자회견</p> <p>- 제네바 核합의문에는 경수로공급협정</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9	<p>이며 외국기업은 하청만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뿐이란 울진 3.4호기에 붙은 명칭이며 정확한 명칭은 한국표준뿐 임. - 미북경수로 전문가會談은 베를린에서 3월하순 만나기로 한 합의사항으로서 美國이 KEDO의 위임을 받아 協商에 임하고 다음부터는 KEDO가 협상주체가 될 것임. - KEDO 사무총장은 美國人이며 韓國과 日本은 사무차장에 임명되었음. 		<p>을 4.21까지 체결토록 밝히고있으나 이는 목표일자이지 최종시한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北韓이 核합의를 깨고 5메가와트 원자로를 再稼動한다면 이는 핵동결을 파괴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유엔安保理에 회부하는 것도 선택방안에 포함될 것임. - 지난해 10.21 核합의가 이루어지기전 한국형경수로 제공 문제는 양측간 이미 해결된 것임.
3.10	<p>0 정부, 北·日 修交교섭 재개 관련, 아직 時期가 적절치 않다고 反對 시사</p> <p>* 정부 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日本·北韓교섭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남북대화 재개등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北韓과 修交교섭을 서두르는 것은 바 	<p>0 平放, 金泳三 대통령의 對北물자 제공 제의 거부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제·북남관계 문제를 장사꾼의 더러운 솜씨로 해결해보려는 김o o이나 나o o의 너절한 처사는 온 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하며, 통일문제·남북관계문제는 결코 물건잔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님. 	<p>0 日 요시로 자민당 간사장, 日北修交협상단 派北 결정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등 집권聯立與黨은 KEDO발족이후 북한과 대화창구개설을 위해 訪北團을 파견키로 했으며, 방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0	<p>람직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총리 나 0 0이 3.8 기자간담회에서 北에 대한 그 무슨 물자지원 제의라는 말갈지도 않은 수작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우면서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느니 呼應을 期待한다고 입방아를 찧었음. - 김 0 0이 북남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각종 형태의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야 함. <p>0 중동, 한국형 경수로 수용不可 관련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은 최근 경수로형을 남조선형으로 한다는 공동보도문까지 발표하였으며, 3.9에는 남조선형 경수로 2기의 제공을 설립협정안에 명기한 조선반도에에너지개발기구를 정식 발족시켰음. - 조선반도에에너지개발기구는 美國의 필요에 따라 조직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 인정한 바 없으며, 美國이 남조선형 경수로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다니는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도전이며 압력임. - 우리는 합의문 이행을 위한 	<p>북단團長은 와타나베 의원(前 外相)으로 決定됐음.</p> <p>0 로드 美國무부 차관보, 核합의 파기뎀 安保理 제재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핵동결 약속을 깨고 영변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 美國은 여러 대안을 韓國·日本과 함께 검토할 것이며, 이 가운데는 유엔安保理에 再회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0		<p>美國의 의지를 의심하며 경수로 提供協定 時限인 4.21까지 경수로 제공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가에 깊은 우려를 가짐.</p> <p>- 만일 남조선형을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로 인하여 경수로 협정이 기간내에 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 갈길을 갈 것임.</p>	
3.11	<p>0 韓·日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무라야마 日本首相 (코펜하겐)</p> <p>- 양국정상은 北韓에 대한 경수로지원을 위해 설립된 KEDO운영에 있어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한반도 문제의 當事者 解決原則에 따라 남북한간에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협의·결정해야 한다는데 공동인식</p> <p>- 무라야마 首相은 일본이 對北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한 事前協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언급</p>	<p>0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수용불가 기자회견</p> <p>- 美國이 남조선형 경수로를 반대하는 입장을 끝내 무시하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구의 목적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실상의 도전이며 조미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같음.</p> <p>- 만일 미국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機構를 우리와 맞붙혀 놓으려하거나 그 무엇을 강요하려 한다면 경수로 협정은 아무때가서도 성사될 수 없게 될 것임.</p> <p>- 남조선 모자를 씌운 경수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납입될 수 없으며, 우리는 경수로 사업에 美國만을 우리의 기본협상자로 간주할 것임.</p>	<p>0 佛 르포앵紙, 北韓 스커드미사일 자이르에 引導 보도</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2	<p>0 韓·中 정상회담</p> <p>* 金泳三 대통령, 李鵬 中國 總理 (코펜하겐)</p> <p>- 양국 정상은 北韓의 核무기 개발저지와 실질적인 南北對話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앞으로 韓·中 두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p> <p>- 金泳三 대통령은 중국이 대화를 통한 北核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p> <p>-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當事者 解決原則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 現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음.</p>	<p>0 祖平統 서기국, 南韓 육·해·공군 합동군사훈련 실시계획 비난 報道</p> <p>- 남조선 괴뢰들이 4.3부터 8일간 군사분계선 가까에서 북침을 가상한 또 한차례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조·미 기본합의이행에 찬물을 끼얹어보려는 계획적인 책동임.</p> <p>- 남조선 괴뢰들이 각종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정세를 긴장시킨다면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은 설사 중지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p>	
3.13	<p>0 金泳三 대통령, 美·北관계 개선과 南北관계의 조화 강조</p> <p>* 벨기에 르스와르紙 회견</p> <p>- 개방을 통한 北韓의 국제 사회편입이 한반도의 안</p>	<p>0 노동신문, 國家保安法 철폐 및 미전향장기수 송환 촉구논평</p> <p>- 김 〇 〇일당은 반공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는 미전향장기수들을 모두 석방하여야 하며 김인서·함세환·김영태들</p>	<p>0 日산케이신문, 경수로 核心부품 日製로 供給 보도</p> <p>- 日本정부는 다음달 말 KEDO와 北韓間의 경수로공급계약 일 전후에 열리는</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3	<p>정과 평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南北關係의 진전과 조화되고 병행하는 北·美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음.</p> <p>- 美國이 일부 對北제재를 완화하기는 했으나 아직 北韓에 대한 포괄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네바 合意에 따른 核문제해결뿐 아니라 남북대화·군축·미사일 수출·화학무기생산·테러·인권 등 問題의 解決이 선행되어야 함.</p> <p>0 統一院, 8개 기업 訪北 승인</p> <p>- 政府는 해태 익스프레스 등 8개 기업 13명에 대해 北韓訪問을 추가 승인하였음.</p> <p>- 政府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94.11.8)이후 지금까지 訪北이 承認된 기업은 1차('94.12.10) 6개기업과 2차('95.1.10) 4개기업을 포함하여 總18개사임.</p>	<p>을 가족 친척의 품으로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함.</p> <p>0 조선亞·太평화위원장 김용순, 訪北 도쿄방송 사장 이소자키 면담</p> <p>0 인민무력부, 金日成의 5대훈련 방침 제시 20돌 기념 보고회 진행</p> <p>* 참석: 최광, 김봉률, 김광진</p>	<p>KEDO 이사회에 경수로 노심등 核心공급을 日製로 제공할 방침을 정식 전달할 예정임.</p> <p>0 美國무부, 3.25 美北 경수로 전문가 會談 베를린서 再開 발표</p> <p>0 린 데이비스 美國무차관, 미사일 수출 中斷 대북촉구</p> <p>* 태평양회의 연설</p> <p>- 美國은 北韓의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이 中斷되지 않으면 北韓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p> <p>- 北韓이 南韓에 대해 가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美國은 우려하고 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4	<p>0 金泳三 대통령, 北韓, 核 합의 破棄時 강력 對應 발언</p> <p>* 기자간담회 (브뤼셀)</p> <p>- 北韓이 일부라도 北·美 합의를 파기할 경우 美·日 등 우방들과 충분히 협의 강력히 對應하겠음.</p> <p>-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미국을 통해 북한에 이미 전달했으며, 北·美 합의가 파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北韓에 통보해 놓은 상태임.</p> <p>0 崔東鎭 경수로 기획단장, KEDO-北韓 공급협정에 올린 3·4호기 명문화 기자회견</p> <p>- 韓·美·日 3국은 KEDO가 북한과 체결할 供給協定文에 올린 3·4호기가 참조 원자로라는 점을 명시할 것임.</p> <p>- KEDO의 공급 협정안에는 설립협정 보다 더욱 발전된 爐型명기가 포함되어 있음.</p>		<p>0 갈루치 美 核대사, 核연료 再稼動時 유엔안보리 회부 대북 경고</p> <p>- 北韓이 영변에 있는 두개의 核연료를 재가동함으로써 核동결을 파기할 경우 美國은 北韓 核문제를 韓·日과 협의, 가능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유엔 安保理 회부를 고려하고 있음.</p> <p>0 日 도쿄신문, 北韓 원자로 再稼動준비 보도</p> <p>- 北韓은 4.21까지 KEDO와 경수로제공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凍結中인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을 再開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p> <p>- 이는 영변에 사찰관을 派遣하고있는 IAEA도 확인했음.</p> <p>0 페리 美 국방장관, 北核合意 不이행시</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4			<p>국방비 추가 요청 발언</p> <p>* 上院 세출위 국방 소위 증언</p> <p>- 北美 제네바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방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예산전용을 요청할 계획임.</p> <p>- 제네바합의가 이행되지않아 작년 6월과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駐韓美軍 증강 등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임.</p>
3.15	<p>0 金泳三 대통령, 北核문제와 統一문제관련 유럽우방들이 우리의 政策을 支持했다고 발언</p> <p>* 유럽순방 귀국인사</p> <p>- 北韓 核문제와 統一문제에 관해서도 유럽의 우방들은 우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協議해 나가기로 약속하</p>	<p>0 북한軍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 개막 (평양체육관)</p> <p>* 참석: 金正日, 최광, 김광진, 김봉률, 이봉원</p> <p>< 당 중앙위 축하문 ></p> <p>-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소대·분대들의 전투조직을 더욱 완성하고,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들의 보관관리를 빈</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5	<p>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의 현장에서 平和統一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歷史의 거대한 힘이 우리의 통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確信을 가질 수 있었음. ○ 統一院, 北韓經濟 5년째 『마이너스』성장기록 발표 * 『'94년도 하반기 북한 경제 동향』자료 - 농업부문의 穀物작황은 전년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영농자재 부족 등으로 平年作에 크게 未達 - 건설부문은 재정부족으로 고속도로·발전소 등 대규모 建設事業은 사실상 中斷상태 - 對外貿易 부문은 전년도 26.4억달러보다 30.7% 減少한 18.3억달러를 기록 - 지난해 北韓經濟는 '90년대 들어 계속된 『마이너스』성장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음. 	<p>틈없이 하며, 초소와 진지를 철벽의 요새로 다져 원수들이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한다면 단호한 징벌을 가할수있게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어야 함.</p> <p>○ 『祖平統』서기국장 백남준, 南韓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확정 발표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당국이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합의서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 - 만일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민족의 생존과 후대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6	<p>0 박 弘 서강대총장, 北韓의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관련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외신에 보도된 북한의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는 사실이며,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이 포섭한 학생을 만난바 있음. - 북한이 지난해 7월 이후 정부요인을 비롯해 주사파를 비난하는 우익인사들에 대한 암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노동신문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음. 	<p>0 평방, 金大統領과 박 弘 총장의 암살기도설은 허황된 반복모략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0 0일당은 허황한 모략을 꾸민데 대해 비싼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시간은 반복모략소동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대가인지 보여줄것임. <p>0 8.15 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 대변인, 남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의 8.15 통일민족대회 개최결정 환영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의 결정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를 환영함. -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빠른 시일안에 쌍방이 제3국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p>0 북한軍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폐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正日에 대한 맹세문 채택 <p>0 北韓의원동맹 대표단(단장: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이몽호), 국제의회동맹 제93차 총회참석차 스페인 향발</p>	<p>0 中國외교부 대변인, 核합의 이행 관련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美사이에 달성한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중국정부는 각 당사자들이 어렵게 얻은 이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對話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희망함.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7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企業의 北韓訪問 계속 許容 발언</p> <p>* 국회 통일외무위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지원사업이 우리의 中心的 역할하에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북한이 끝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美·北합의 이행이 차질을 빚게되는 상황변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함. - 북한의 이중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民間次元의 南北經協은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 企業들의 북한방문은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따라 계속 승인해나갈 것이며, 示範的經協도 선별적으로 허용해 나갈것임. - 경제교류협력 뿐만아니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 	<p>○ 駐유엔 대사 박길연, 4.21은 경수로 협정체결 최종시한 아니라고 기자회견 (3.18 연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한 제네바 核합의에 따라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 협정 체결시한으로 4.21은 최종시한이 아니라 목표일자임. 	<p>○ 고노 日외상, 북한에 쌀제공 가능성 일축</p> <p>* 참의원 외무위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여론이 북한에 쌀제공을 지지하더라도 日本은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에 지원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움.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7	<p>력도 그것이 비정치적이고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음.</p> <p>○ 國防部, 북한軍 대규모 훈련 실시 발표</p> <p>* 국회 국방업무보고</p> <p>- 북한軍은 현재 冬季訓練中으로 공군의 경우 전술기의 對地공격, 저공침투용 경비행기인 AN2기 공수투하 훈련, 야간훈련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p> <p>- 北韓 지상군도 여단급 규모의 동계훈련을 진행중이며, 해군은 동계정비기로 예년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음.</p>		
3.18	<p>○ 政府, 日 연립여당의 訪北時期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전달</p> <p>* 金夏中 외무부 아주국장, 가와시마 日 외무성 아시아 국장 회담</p> <p>- 金夏中國장은 日연립여당의 방북은 시기가 적절하</p>	<p>○ 중통, 美國의 한국형 경수로 강요 비난 보도</p> <p>- 美國이 우리에게 남조선형 경수로를 받아들여도 강요하는 행동은 대화 쌍방간에 예기치 않은 위험한 정세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임.</p> <p>- KEDO가 남조선형 경수로 공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18	<p>지 못하다고 지적</p> <p>- 이와 관련 日 가와시마국장은 여당연합의 訪北案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언급</p>	<p>을 목표로하고 있는한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지 않을 것임.</p> <p>-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KEDO를 우리의 대화상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협상자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조·미합의문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생각치 않을 수 없음.</p>	
3.19		<p>0 평방, 南韓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비난논평</p> <p>- 공화국 북반부에 가까운 경기도 용진군 굴업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발표한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원자전쟁 포고나 다름없음.</p> <p>- 이런곳에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는것은 우리의 턱 밑에 핵시한탄을 묻어놓으려는 것 같으며, 결국 우리에게 핵폐기물 피해를 입히려는 책동의 다른 것이 아님.</p> <p>- 만약 우리의 경고와 거래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p>	<p>0 美, 北韓에 옥수수 輸出</p> <p>(3.19 중앙)</p> <p>- 美國 곡물수출회사인 바트래트社가 3.15 北韓에 수출하기 위해 옥수수 5만4천톤을 선적했으며, 수출대금은 달러로 결제키로 했음.</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0	<p>0 統一院, 남북교역상담地方 窓口개설 발표</p> <p>- 4월1일부터 지방무역업체 의 南北交易 증진과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해 貿易協 會 부산지부등 10개지역 에 지방상담창구를 開設 할 예정임.</p> <p>0 統一院 代辯人, 굴업도 핵 폐기물 처분장 관련 모략 중지 및 당국간 對話 呼應 촉구 聲明</p> <p>-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처 분장은 원자력의 平和的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 기물을 安全하게 관리하 기 위한 시설로서 북측이 시비할 아무런 이유없음.</p> <p>-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전 문가의 입지 타당성과 안 전성 문제에 대해 檢證과 確認을 받은 바 있음.</p> <p>- 北韓이 굴업도 시설에 대 해 『새로운 불집을 조성 하는 원자 핵공격 작전 개시』라고 날조하고 있 는 것은 중상모략이며, 도발적 행위임.</p> <p>- 北韓이 『남북 합의서의</p>	<p>0 외교부 대변인, 美國의 駐韓美 軍 장비증강 비난談話</p> <p>- 미국은 남조선 미군현대화 계 획에 따라 지난 두달동안 이 미 20대의 다목적 고속이동차 량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앞 으로 500대의 고속이동 차량 을 더 끌어들인다고 함.</p> <p>- 이러한 대대적인 무력증강 책 동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공약한 조·미 기본합의문에 전적으로 배치 되는 행동임.</p> <p>- 미국은 긴장완화의 현 국제적 추세와 조·미 기본합의문 정 신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우 리에 대한 군사적 압력시도를 포기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증 강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함.</p> <p>0 노동신문, 金대통령의 유럽순 방중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 지요청 비난 論評</p> <p>- 김 0 0이 영국에서 안보리 비 상임이사국으로 선거될 수 있 도록 도와달라고 한 속셈은 유엔안보이사회를 악용하여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조선 반도에서 분열과 대결의 분위 기를 고취하려는데 있음.</p>	<p>0 日산케이신문, 『韓 ·美·日 3국, 경수 로 시한내 계약 안 되면 유엔서 對北제 재논의 합의』 보도</p> <p>- 韓·美·日 3국은 북한이 한국型경수 로를 거부해 KEDO 와 경수로공급계약 이 4.21까지 이뤄 지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 하기로 합의했음.</p> <p>0 폴란드, 中監委 추 방관련 곧 對北보복 조치 시사</p> <p>* 포미아노위스키 폴 란드 외무부 아시 아 국장 언급</p> <p>- 폴란드는 北韓의 이번 추방조치가 양국간 관계에 악 영향을 끼칠것이라 는 사실을 북한에 이미 통보했으며, 2주안에 對應措置 를 북한측에 전달 할 예정임.</p> <p>0 美上院 외교위, 남</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0	<p>전면백지화』운운은 남북 당국간 對話를 계속 회피하고 기존의 남북합의 사항을 파기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意圖에서 나온 것임.</p> <p>- 南北基本合意書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장전이며, 쌍방 최고책임자가 비준한 엄숙한 민족적 약속으로 이를 破棄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p> <p>- 북한은 우리측에 대한 중상모략과 비방선동행위를 중단하고 當局間 對話에 呼應해 나올것을 촉구함.</p>	<p>- 김 0 0은 비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양탈을 부림으로써 서방나라들과 다른 유엔성원국들의 요구까지 무시하며 그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괴뢰들은 더욱 커다란 창피를 당하기전에 어리석은 놀음을 견어치워야함.</p>	<p>북대화 촉구 관련 對北결의안 의결</p> <p>- 헬름스 美上院외교위원장등 여야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共同決議案은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개최, 남북간 핵시설 상호 사찰도입, 남북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공동 군사협약의 재개, 남북 상호여행자유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促求했음.</p>
3.21		<p>0 외교부 대변인, 美國의 경수로 관련 대북 유엔제재시 자위조치로 對應 기자회견</p> <p>- 미국이 합의문 이행의 첫단계에 불과한 지금 대화상대방에 대한 제재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누구의 충동으로 입장을 변경시켰음.</p> <p>- 美國이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집하는 것은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입장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1		<p>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수로 협정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목인하고 일방적으로 核 동결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 만일 이 문제와 관련 부당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그에 대처해 자위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며, 우리는 경수로 공급에 관한 3단계 協商에서 올바른 자세로 나오기를 주시할 것임. 	
3.22	<p>0 金泳三 대통령, 核합의 不 이행시 세계의 대북 응징 警告</p> <p>* 육사 임관식 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이 만약 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전세계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임. - 北韓은 오래전부터 올해를 統一의 해로 정해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최근에는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우리 政府에 대해 격렬한 誹謗과 군사정전협정의 무력화 	<p>0 중방, 통일원 대변인의 굴업도 핵폐기장 관련 對北聲明 비난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업도는 核폐기물 처리장으로서 안전성 담보가 전혀 없는 장소이며, 거기에 건설공사를 벌이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원자전쟁포고나 다름없음. - 우리가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합의서가 전면백지될 수 있다는 경고는 응당함. -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업도 核오물장 건설을 강행한 	<p>0 北·中, 한국형경수로문제 관련 견해차 노정</p> <p>* 중국 소식통 (3.23 중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北美合意의 성실한 이행이 한반도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북한에게 현실적 태도를 취하기를 권유했음.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2	<p>기도를 계속하고 있음.</p> <p>○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南北經協은 남북관계 進展에 따라 擴大</p> <p>* 기자간담회</p> <p>- 南北經協은 임가공·생필품 교류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소 엄격한 현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가 進展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음.</p> <p>- 人的交流는 김일성생일과 평양축전 등이 있어 時期적으로 부적절하므로 5월 이후 추진이 바람직함.</p> <p>- 당분간 停戰協定을 지켜 나가되 남북간에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평화체제 정착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p> <p>○ 朴 弘 서강대 총장, 北의 암살說 관련 證言</p> <p>* 독일간첩단사건 공판</p> <p>- 나에 대한 北韓의 암살기도설은 사실이며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유예</p>	<p>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함.</p> <p>○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등,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 저지 관련 南韓 반핵 단체들에 방송 편지</p> <p>-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는 것은 북과 남의 반핵운동가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절박한 과제이며 민족적인 의무임.</p> <p>- 우리 조선자연보호연맹과 반핵평화옹호단체들은 남조선 전국반핵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반핵 및 환경보호단체들에 굴업도 核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저지시키기 위한 공동투쟁대책을 협의할 것을 提議함.</p> <p>- 雙方代表들의 협의장소는 양측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되, 귀측이 제기하는 임의의 장소라도 무방할 것이며 접촉날짜는 빠를수록 좋음.</p> <p>○ 중·평방, 統一院 대변인의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對北聲明 비난 논평</p> <p>- 남조선 통일원 대변인이라자</p>	<p>- 北韓은 이에 대해 韓·美가 한국형경수로문제를 빌미로 북한을 곤경으로 몰고있으며, 궁극적으로 北韓政權을 붕괴시키려하고 있다고 拒否했음.</p> <p>○ 日 연립여당, 3.27 합동의원단의 訪北을 最終合意</p> <p>○ 블릭스 IAEA 사무총장, NPT연장회의의 1년연기 가능성 발언</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2	<p>판결을 받은 한병훈이 독일 유학생으로 北韓에 들어가 암살교육을 받고 지령에 따라 나를 암살하려 한 장본인임.</p>	<p>의 불순한 언동과 남조선 방송보도는 우리에게 대한 또하나의 도발로써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p> <p>- 불은 저들이 질러놓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 무슨 위협적 언사니 유감이니 하면서 시비 할 것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날강도 논리임.</p>	
3.23	<p>○ 자수간첩 한병훈, 朴弘 서강대총장에 대한 암살기도 공개 기자회견</p> <p>- 北韓의 지령에 따라 박총장 암살을 기도한 것이 사실이나, 朴총장을 접촉한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오히려 이 사실을 朴총장에게 털어놓았음.</p>	<p>○ 경수로관련 北·美 전문가회담 北側 단장 김정우, 한국형 논의 배제 주장</p> <p>* 베를린 도착 기자회견</p> <p>-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회담에서 한국형 채택문제는 의제조차 될 수 없으며, 협상진전여부는 경수로 선정에 관한 미국측 태도에 달려있으며,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일자인 4.21은 완료일자임.</p> <p>< 북측대표단 도착성명 ></p> <p>- 이번 협상의 진전여부는 경수로 爐型 선정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北美 기본합의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임.</p>	<p>○ 美國, 한국형경수로 관련 북한에 양보 시사</p> <p>* 국무부 보도자료</p> <p>- 北韓이 현재와 같이 핵동결을 계속 유지할 경우 KEDO-북한간 경수로供給協定을 조속한 시일안에 타결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4.21은 目標시한이지 確定시한이 아님.</p> <p>- 한편 갈루치 국무부核대사도 '경수로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국형이면 명칭에는 구애받지</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이 이번 협상을 실제로 합의문 이행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간주하고 있음. ○ 중·평방, 南韓 해군이 北韓 영해에 불법침입 주장 보도 - 3. 23 10시 12분경 괴뢰군 전투함선 2척이 어선을 납치할 목적으로 황해남도 용진군 서남쪽 우리측 영해 깊이 침투했음. - 백주에 감행된 해상침범행위는 북남대결을 고취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책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않겠다고' 언급하였음. - 현재 NPT연장을 위한 다수표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이번 會議가 1년간 연장될 수 있으나, NPT는 이기간동안 계속 維持될 것임. ○ 데이비드 존슨 美國 무부 대변인, 北韓이 원자로 再가동시 對北제재 경고 論評 - 만약 北韓이 핵동결약속을 파기하면 우리는 유엔안보리에 이문제를 상정해 제재를 논의할 것임.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泳三 대통령, 北核문제 관련 제차 對北경고 * 해사 임관식 치사 - 북한이 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할 경우 세계의 응징을 면치못할 것임을 분명히 警告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放, KAL기 폭파범 김현희 고백록 책자관련 論評 - 김 〇 〇일당이 남은 모략문서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은 일본 집권 여당들의 일조 관계개선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음. ○ 『祖平統』, 金大中이사장 조문발언 관련 聲明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나의 이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임. - 북한은 동구공산주의 몰락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와 악화일로로 경제난, 그리고 체제모순이라는 三重苦를 맞고 있음. - 북한이 이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韓半島에 緊張을 조성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p>○ 韓美, 韓國型 경수로 관철 再확인</p> <p>* 워싱턴 韓美고위실무자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韓 제공 경수로 기종은 韓國型으로 한다는 종전의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했음. - 北韓이 만일 현재의 핵동결상태를 깨고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데 示意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아·태재단 이사장 金大中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라기 보다는 수령의 서거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했던 남조선의 민심을 반영한 것임. - 金00은 저들이 저지른 야만행위를 뉘우칠 대신 통일원장관과 민자당대변인을 내세워 저들의 대응태도가 적절한 조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음. - 민족앞에 저지른 대죄를 사죄하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합리화해보려는 김 0 0일당의 망발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분노와 격분을 일으키고 있음. <p>○ 中放, 金泳三 대통령의 육사졸업식 발언 非難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 0 0의 도발적인 폭언은 조선반도의 현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수작임. - 金 0 0이 이번에 우리를 걸고 든것은 朝·美합의문의 이행에 따라서 저들에게 불리하게만 되어가는 정세의 흐름에서 불안을 느끼고 한 소리임. - 오늘 우리인민과 인민군대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굳게 뭉쳐서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4		<p>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음.</p> <p>0 노동신문, 韓半島 임의시각 전쟁발발 경고 論評</p> <p>- 美국방성은 美軍의 단계적축감계획을 취소하고 무력증강책동을 노골화 하고있음.</p> <p>- 美國의 무모한 군사적 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음.</p> <p>- 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軍事的 소동이 임의의 시각에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함.</p>	
3.25		<p>0 조국해방 50돌경축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 제2차 회의 진행</p>	<p>0 미·북 경수로 전문가 회담 개최 (3.25- , 베를린)</p> <p>-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과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국무부 비핵확산국 부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p> <p>- 첫날회의는 북한측의 한국형 수용절대불가 입장 고수</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5			에 따라 아무런 진 전없이 종결
3.26		<p>0 『조국전선』중앙위 의장 정두 환·『범민련』북측본부 의장 백인준, 김대중 아·태재단 이 사장의 조문발언 관련 담화</p> <p>- 이번에 또다시 궤변으로 저들 의 죄행을 정당화하려고 잘 못을 지적한 사람을 위협·공 갈하여 나섬으로써 동족간에 화해·단합의 의사가 없고 북 남관계를 더욱 엄중한 대결국 면으로 끌고갈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음. 이것은 결국 북남대화 거부선언이고 대결 선언임.</p> <p>0 평방, 자수간첩 한병훈의 암살 지령 관련 논평</p> <p>- 증거를 밝히려는 내외의 목소 리가 높아지자 급해맞아 이따 위 놀음을 벌여놓았지만 연극 치고는 유치하고 어설플 각본 으로 연출해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3.27	<p>0 國防部, 韓美해상연합훈련 실시 발표</p> <p>- 3.21-24일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한국해군 소속</p>	<p>0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聲明</p> <p>- 남조선의 안기부가 연변지구를 비롯한 동북 3성일대에 첩자들을 파견하여 교포들 사이</p>	<p>0 미상원 의원, 금년 하반기중 남북한 국 회의원 동시 초청 의사 표명 (3.27 조선)</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7	<p>함정과 美國의 항모함대가 연합훈련을 실시함.</p> <p>- 美항모 인디펜던스호가 훈련일정에 따라 한국해역을 지나게 되어있어 韓美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임.</p> <p>○ 北送僑胞 일가 5명등, 제3국 통해 歸順</p> <p>* 歸順者: 오수룡(61), 김초미(54) 오명선(31), 오인화(4) 오수화(2), 박철만(28)</p>	<p>의 이간과 반목,대결을 조장시키는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음.</p> <p>- 김○○ 일당이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대결책동을 더욱 감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화해할 생각도 없고 대화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p>	<p>- 지난해 12월 서울, 평양을 동시방문한 바 있는 풀 사이먼 의원은 최근 미국 무부와 협의를 거쳐 개인차원의 남북한 의원 동시 초청 의사를 우리 국회와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밝혀짐.</p> <p>○ IAEA 정기이사회 개막 (비엔나)</p> <p>- 금번 이사회에서는 영변핵단지 등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결과 평가와 함께 북한·IAEA간 핵동결 기술상 문제점들을 지적, 적절 대응조치 촉구 예정</p> <p>-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동결상황을 대체로 긍정 평가, 그러나 일부부문관련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시기술상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고 언급</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8	<p>0 金泳三 大統領, 비방 중상 중지 대북촉구</p> <p>* 空士 임관식</p> <p>- 韓半島에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를 중상비방하는 모든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p>- 北韓만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외면하고 남쪽동포를 겨누는 군사력을 끊임 없이 증강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가열시키고 있음.</p> <p>- 北韓이 核合意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경우 세계의 단호한 응징을 면치 못할것임을 거듭 경고함.</p>	<p>0 평양시, 金日成사망시 우리정부 대응태도 적절발언 관련 규탄 군중집회 (청년중앙회관)</p> <p>< 박남기 연설요지 ></p> <p>- 김 o o이 통일원 대변인을 내세워 지난해 우리의 유고당시 저들의 대응태도가 지극히 적절한 조치였다느니, 발언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느니 하고 도전해 나선대 대해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거세찬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음.</p> <p>- 우리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저들의 죄행을 사죄할 대신 조의예절 문제마저 정치화하여 사람들을 위협공갈하는데 대해 엄중시 하지 않을수 없음.</p> <p>* 『직맹』위원장 주성일 · 『사로청』위원장 최용해 · 『농근맹』위원장 최성숙, 조문관련 남측행위 비난담화 각각 발표</p>	<p>0 美 · 北경수로전문가 회담 조기종결 (3.28 중앙)</p> <p>- 노형선정문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3.27조기종결된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형은 수용할 수 없지만 한국기업도 경수로제작과 시공에 참여가능하다는 신축적 입장을 미측에 전달</p> <p>- 양측은 회담을 일단 종결한뒤 그 내용을 양국정부에 보고기로 했으며, 미국은 한 · 일양국과 협의 예정</p> <p>0 日연립여당 대표단, 북한 향발</p> <p>-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소속의원 11명으로 구성, 3일간 방북예정</p> <p>0 美 WP紙, 韓 · 美 北에 主계약자명기 양보 시사 보도</p> <p>- 北美경수로 회담과</p>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8			<p>관련하여 한국이 경수로 공급에 있어 중심적 역할만 한다면 한국을 주계약자로 인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시사했다고 보도</p>
3.29	<p>○ 朴弘 서강대총장, 중요 기관에 親北세력있다고 주장</p> <p>* 光復50주년 범민족대토론회 연설</p> <p>-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기관속에 잠입한 친북동조세력이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p> <p>- 우리사회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체제 불안정의 조짐증세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것은 바로 이들세력의 공작과 활동에 기인한 것임.</p> <p>-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비를 가릴수 있는 민주정치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이 본격실시 되어야 함.</p> <p>○ 統一院, 기업인 3명 북한</p>	<p>○ 외교부대변인, 조·미 경수로 협상결과 관련 기자회견</p> <p>- 우리측은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았으며, 미측은 우리 제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음.</p> <p>- 이에따라 양측은 협상을 일시중지키로 하고 다음협상은 4월 중순에 베를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음.</p> <p>- 우리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문제해결은 대화상대방의 진지한 자세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p>	

■ 3 월

월일	한 국	북 한	주 변 동 향
3.29	<p>향발 발표</p> <p>- 효성물산 홍콩유한공사 박교우 사장등 일행 3명 이 투자 타당성 조사차 북한 방문</p>		

南北對話 年表

(1995. 1. 1~3. 31)

發行日：1995年 4月 8日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